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게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7월 22일) 2020년 9월 9일 수요일

20년 이어진 3000배 난치병 어린이 살리다

조계종복지재단 '3000배 철야정진' 20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희귀질환으로 알려진 기텔만 증후군으로 고통받던 손민지(19차 대상자) 양에게 2019년은 잊을 수 없는 한해다. 기텔만 증후군은 신장 기능 이상으로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 주요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해, 일상생활 중에도 갑작스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신체기능이 크게 저하돼는 난치병이다.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 가족의 시름만 커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들이 찾아왔다. 손양의 손에 노란색 단주를 채워주며 따뜻한 격려의 말로 용기를 줬고, 부모님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전국 사찰에서 손양을 위해 치료비 1000만원을 모아 지원해 줬다고 했다. 치료비의 감사함은 물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양의 쾌유를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근디스트로피'라는 희귀병을 앓아온 이보람 · 우람 형제(13차)도, '선천성 대사질환요소회로 OTC'라는 희귀병을 앓았던 박민수 어린이(13차), 소아당뇨로 매일 인슐린 주사와 혈당검사를 받아야 했던 박해룡 어린이(19차) 역시 인생을 바꿀 만큼 크나큰 희망을 선물 받았다. 모두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의 수혜대상자들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의 대표적인 나눔프로그램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이 올해 꼭 20년을 맞았다.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은 전국 사찰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절을 한 사람들의 마음이 일배 당 100원의 기금으로 환원돼 난치병 환아들의 치료비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마음만 담은 기부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종교와 성별, 국적을 떠나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어린이들이며, 후원자는 불자와 시민들이다. 그야말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나눔으로 이어진 법석이었던 셈이다.

지난 20년간 전국 각지에서 3000배 철야정진에 마음을 보탠 후원자만 1만5000여명.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모은 정성은 13억 2000만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으로 이어졌고, 국내외 난치병 환아 445명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선사했다.

치료비 지원으로 인한 감동 사례만 수십 건이다. 특히 이 중 2011년 당시 모야모야병으로 투병중이던 고주현 어린이(11차)는 수술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차례 수술 이후 크게 호전된 모습으로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을 뿐 아니라, 난치병 친구들의 쾌유를 바라며 '발원문'을 낭독해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2001년 첫 시행 당시에는 108배 정진 형태였다. 당시 서울 조계사에 500명이 모여 600만원을 모연했고, 난치병 환아 6명에게 치료비로 전달됐다. 1박2일간 3000배 정진을 통해 모금하는 현재의 방식이 정착된 것은 5차 정진부터다.

8차 법회에서 처음으로 모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섰고, 13차 때는 1억1000만원을 달성했으며 지금까지 적게는 9400만원, 많게는 1억6800만원까지 모연되는 등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덕분에 난치병 환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도 증가해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복지재단 해외구호센터가 위치한 라오스 등 해외 난치병 어린이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해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대상자 가운데 치료비를 후원받은 뒤 본격적인 치료를 진행해 병세가 크게 호전된 사례도 적지 않다.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해 남녀노소, 종교, 지역 등 구분을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난치병 환아돕기 철야정진은 가장 힘들고 절실한 상황에 처한 난치병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자비와 희망을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지난 20년간 난치병 어린이의 쾌유를 발원하며 동참해 준 수많은 분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특히 스님은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더 많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온라인 모금으로 전환됐다. 9월 한달간 3000배 철야정진 모금계좌(하나은행 271-910005-95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를 통해 동참 가능하다.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정진' 숫자로 보는 20년

도움 준 난치병 환아	445명
지원한 치료비	13억 2000만원
누적 참여인원	1만 5000여명
2001년 첫 모연	600만원
2019년 모연금	1억 7000만원

불교 대표 나눔프로그램 안착
20년 간 동참인원 1만5000명
13여 억원 모연… 445명 지원
올핸 코로나19로 온라인 모금



코로나에도 백만원력 동참 '감동'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을 맞아 전국에서 백중법회가 봉행된 가운데 9월 2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백중 49일 기도회향법회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백만원력결집불사 발우저금통에 합장하고 있다. 백중 회향에서 불자들은 선망부모 극락왕생과 유주고혼 천도 뿐만 아니라 백만원력 결집불사 동참을 통해 상생의 삶을 서원했다. 조계사는 백만원력 기금으로 1억 2424만원을 전달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왕건 스승 '희랑대사상'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9월 2일 지정예고
실제 고승 재현 유일 조사상
조사과정서 '건칠'기법 확인
가슴의 '흉혈'까지 표현 눈길



실제 고승을 재현한 유일한 조사상인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 사진)'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시대 고승의 실제 모습을 조각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9월 3일 밝혔다.

국보로 승격 · 지정 예고되는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이하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신라 말~고려 초까지 활동한 고승인 희랑대사(希朗大師, 생몰연대 미상)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인 희랑 대사는 화엄학에 조예가 깊은 학승이었으며, 해인사 희랑대에 머물며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대사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 왕건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해인사 중창에 필요한 토지를 하사하기도 했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조각(祖師像 · 僧像)으로서,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한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을 많이 제작했지만, 한국에는 유례가 거의 전하지 않는다. '건칠희랑대사좌상'만이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한 조각품으로 전래되고 있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조선 시대 문헌기록을 통해 해인사의 해행당, 진상전, 조사전, 보장전을 거치며 수백 년 동안 해인사에 봉안됐던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이덕무(1741~1793)의 〈가야산기(伽倻山記)〉등 조선 후기 학자들의 방문기록이 남아 있어 전래경위에 대해 신빙성을 더해준다.

또한 지정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의 과학 조사 결과,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얼굴과 가슴, 손, 무릎 등 앞면은 '건칠(乾漆)'로, 등과 바닥은 나무를 조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앞면과 뒷면을 결합한 방식은 보물 제1919호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처럼 신라~고려 초기의 불상조각에서 확인되는 제작기법이어서 조각상의 제작시기를 유추하는 데 참고가 된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의 또 다른 특징은 '흉혈국인(胸穴國人, 가슴에 구멍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의 별칭을 상징하듯, 가슴에 작은 구멍(폭 0.5cm, 길이 3.5cm)이 뚫려 있는 것이다. 이 흉혈(胸穴)의 유래는 해인사 설화에서 희랑대사가 다른 스님들의 수행 정진을 돕기 위해 가슴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모기에게 피를 보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고승의 흉혈이나 정혈(頂穴, 정수리에 난 구멍)은 보통 신통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1024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칠기법이 적용된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육체의 굴곡과 피부 표현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선 후기에 조성된 조사상들과 달리 관념적이지 않고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인다"면서 "우리나라에 문헌기록과 현존작이 모두 남아있는 조사상은 '건칠희랑대사좌상'이 유일하다. 제작 당시의 현상이 잘 남아 있고 실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내면의 인품까지 표현한 점에서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한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비롯해 보물로 지정 예고한 '간이벽온방(언해)'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봉축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 국보승격

범어사 소장의 『삼국유사』 권4~5(국보 제306-4호)가 국보로 승격되었다.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는 조선 태조 3년(1394년) 경주(慶州)에서 만들어진 목판을 찍어 만든 조선 초기본으로 현존본 중 가장 빠르며 인출 및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권5의 시작 부분에 『삼국유사』를 집필한 장소인 경북 군위의 '인각사(麟角寺)'와 저자 '일연(一然)'이 표기된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특히 조선 초기본의 경우는 완질본의 형태가 아닌 개별 권으로 각각 다른 주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상태로 범어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스님이 집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사찰 내에서는 범어사가 유일하게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부산의 자랑이며, 금정총림 범어사의 정신을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

“사람과 도시’ 공존될 때 해운대 가장 빛날 것”

특별인터뷰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

민선 7기 홍순헌 해운대구청장(부산대 건설융합학부 교수)은 도시공학 전문가 출신이다. 전문가란 이름에 걸맞게 해운대구를 모두 7개 권역(우동, 중동, 송정, 좌동, 반여, 반송, 재송권역)으로 세분화시켜 도시균형발전에 적합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다. 취임 2년차인 홍 구청장은 “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자체가 되는 순간 우리 해운대가 가장 빛이 날 것”이라며, “해운대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행복과 도시 발전이 함께 공존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후반기 구정에 진력하겠다”고 야심찬 결의를 내비쳤다. 또한 홍 구청장은 특히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체증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통 문제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서 ‘새로운 터널 건설’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해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60만 평에 달하는 반송 · 반여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도 이끌어냈다. 여기에 2000여 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도시첨단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지원에 나섰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구민 일자리사업 등 민생안정에 450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8일 부산 해운대구청장 실에서 취임 후 2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모태신앙인 불교관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김주일 편집국장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스터 스마일’ 별명… 민원인들에게도 항상 미소 잃지 않아
도시공학전문가 출신답게 해운대구 7개 권으로 세분화 사업
교통체증 해결 급선무, 터널 건설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60만평 반송 · 반여 그린벨트 해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도심 명상 숲체험 공간도 구상중… “도시인 힐링에 도움 줄터”



▲홍순헌 구청장은?

1963년 경상남도 양산군 원동면 원리에서 태어났다. 동아대서 토목공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한 이후에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배덕광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또다시 현직 구청장인 한나라당 배덕광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현직 구청장인 자유한국당 백선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해운대 구청장으로 집권한지 2년차를 돌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구청장 부임 후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요?

=내적인 것과 외부로 드러난 정량적인 것으로 성과를 나눠 볼 때 정량적인 것은 이미 통계로 나와 있으니 자랑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웃음)

조직내의 변화를 말씀 드리죠.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공무원은 굉장히 철밥통이다’ 란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청장이 돼서 일을 함께 해보니 우리가 모르는 관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 역할을 철밥통이란 이미지서 벗어나 구민을 위해 일하는 가치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했죠. 이를 위해서는 구민들과 구청 공무원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이해도가 떨어지고 신뢰도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구청 직원들이 잘한 일은 제 입으로 잘한다고 알리고 칭찬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돼 잘 못하는 것은 이해도를 높이도록 설명해주고, 진짜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벌을 줬습니다. 이런 역할은 민선을 거쳐 투표로 구청장이 된 저같은 민선 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굳이 성과를 말하자면 구민들과 공무원들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 노력이 있으시다면 소개 바랍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해운대를 통과하는 우회 교통에 대해서는 흔히 간과합니다. 센텀에서 북구 만덕 사거리까지 가는 대신동 터널이 지난해 11월 착공됐습니다. 이 때문에 40분 걸리던 시간이 10분 정도로 단축 됐죠. 북부산 쪽 교통문제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현 정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했는데, 그 한 구간이 해운대 남부 축 연결문제 해소 방안이었습니다. 해운대와 사상간을 연결하는 서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 대해 해당 부처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된다면 2028년~2029년경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서축과 남부축의 우회 교통로가 해결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정관 진입로서 해운대로 들어오는 수영 강변 쪽 하나 뿐인데요. 특히 아침 저녁 출퇴근 시 문제가 되는데, 원도심인 좌동 신시가지와 해운대 내륙 지역인 반여 반송에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터널이지요. 이 터널의 접근성을 검토해 국토부 용역 제정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 공사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하지만 도로망 연결만 갖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로도 중요하죠. 2021년 말경이면 중앙선 철도가 서울 청량리서 부산 해운대까지 완공돼 3시간이면 오갈 수 있어요. 굳이 도심에 있는 부산역을 거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짚어볼 내용이 내부 교통 문제입니다. 신호 체계를 점검해 직진 좌회선을 3초 정도만 바꿔줘도 자동차가 4대서 5대 정도가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빌딩, 다중 시설, 은행, 주상복합건물 등에 택시 주정차 구간이 없습니다. 택시가 잠시 정차하더라도 직진 두 개 차선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점을 개선했더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방역 대책이 궁금합니다.

=우선 탈의장과 샤워장 이용시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샤워 부스 안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가 되어 있어도 손소독, 열 체크 후 들어가게 했죠. 들어가고 나면 물론 한칸 씩 띄우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비치 파라솔의 경우 2미터 간격을 유지해 설치를 미리 해뒀습니다. 그동안은 돈만 주면 모두 대여해줬지만 지금은 파라솔마다 넘버링을 매겼죠.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적 사항을 적거나 QR코드로 확인한 후에만 대여해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구매자 정보가 전표에 남도록 비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이는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만 전국서 유일하죠.

방역법을 강화해서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3주전 한 사람 적발해서 첫 케이스로 벌금을 부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국비로 160명의 안전요원도 뽑아서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가령 마스크를 안 가져 오신 분을 대상으로 덴탈 마스크도 드리고 있죠. 해수욕장 방역 만큼은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만반의 방역 준비를 했습니다.

▲반송, 반여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이끌어내 도시 균형 발전 사업 부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주관 사업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직 구청장때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올 5월 해결이 됐습니다. 해안 쪽과 내륙 쪽의 발전 격차가 심했는데, 해제된 지역에 20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 판교 테크노밸리 이상 가는 도시첨단 스마트 산업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송 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前 청장님이 기획했는데 심사 평가서 떨어졌습니다. 재점검 해서 다시 보완 제출 후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되려면 거점 센터가 기본인데 반송 지역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거기에 맞는 부서를 만들어야 돼서 취임하고 첫 조직 개편 때 구청장 직할로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반여2, 3동 계획도 생각보다는 힘이 덜 들었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어서 주민들도 이해하고 조직 센터를 갖추었죠. 도시재생추진단도 다시 조직 개편을 해서 도시재생과란 부서로 신설했죠. 지난주에는 부산시에 200억 사업 예산을 신청했는데 통과가 되었습니다. 9월 말 혹은 10월에 국토부 심의만 남아 있는데, 법리적 검토 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인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OK 공감 구청장실’을 운영해 매주 금요일 마다 민원실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느낀 점과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되면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민원실서 근무하려 했습니다. 인수위 때 대화해보니 담당 공무원이 ‘제가 죽는다’ 고 말리더군요.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주변서 ‘두 달 정도 지나면 지쳐서 손발 다 들 것’ 이라고 생각했답니다.(웃음)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걸 보니, 예상은 빗나갔죠. 민원 업무를 들여다보니 정문 앞에서 집단 시위를 하거나 건설과 혹은 건축과에 몰려가서 고함지르는 분이 많아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민원실서 구민들을 만나면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조율할 것은 즉석에서 조정 해주었습니다. 또 해당 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해결할 문제면 호출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민원이면 그 자리에서 거절 했죠.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착돼서 집단 민원이 들어오면 으레 제가 출근하는 금요일 민원실로 안내합니다. 통계를 내보니 약 46% 정도가 즉석에서 금요일 날 해결해 줬죠. 다행히 대부분의 민원이 제가 전공인 도시공학 분야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내 숲속에 명상힐링센터 건립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 계획도 궁금합니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활용입니다. 해운대구는 바다를 보고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숲이 있는지 알면 새로운 환경에 놀랄 것입니다. 해운대는 원래 산과 바다. 숲, 온천 등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크게 주목 받다보니 다른 부분이 가려진 셈이죠. 센텀2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 인근 지역이 민간인 출입 통제 구간이었더군요. 국방부가 땅을 갖고 있었기에 사람이 들어 갈 수 없었고 60년 동안 제한돼 있었죠. 철조망 치우고 나면 우후죽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서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 관광 인프라로 구축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진 도시인들의 마음에 힐링을 주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심형 숲체험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제 임기 내에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절에서 봉사 활동과 함께 신행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은 종교가 있으신지요?

=독실하게 믿는 종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모태적으로 보면 불교입니다. 삼랑진이 고향인데 만어사란 사찰에 가면 선친들의 발자취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죠. 선대서 모친까지 만어사서 신행 생활을 했고 제 이름도 대종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친이 워낙에 독실했기에 심적으로 힘들거나 어머니 생각이 나면 만어사에 종종 갑니다. 구청장직을 맡다보니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해운대구 관내서 일어나는 주요 종교 행사에는 형평성을 갖고 편애하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불교적 가르침이나 경구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 ‘오르막과 내리막’ ‘갑과 을’의 존재를 항상 되새기자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되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 이치가 영원한 갑도 을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신 가르침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세상사가 언제나 머무를 수 없고 바뀌고 변화하기에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설사 지금 안좋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막에 있어 좋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내리막에 있어 힘들다고 실망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입니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앞서 말씀 드린 공약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합니다. 공약 범위 내에서 일하다보면 지속 가능한 것과 임기 내 가능 한 것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제가 영원하지 않듯이 다음 청장님이 오면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미래 어느 때까지 자생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해운대 어메니티 사업’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 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은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일회성으로 해운대를 찾은 사람들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좋은 기업이 유치돼 발전을 할 것이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세계 속에 자리매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운대 어메니티 사업을 앞으로 4년, 8년 12년 아니 그 이상 더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임기 중에 튼튼히 해놓고 싶습니다.

역대급 태풍 강타… 사찰門도 넘어졌다

부산 · 경남권 사찰, 강풍 · 폭우에 피해 속출

하성미 기자 · 이도경 · 성낙두 지사장

문화재인 전각의 벽화가 폭우로 유실됐으며, 대웅전 문과 기와가 날아가고 경내 나무들이 쓰러졌다. 9월 3일 새벽,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마이삭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부산 · 경남 일대 사찰들도 재해를 비켜가지 못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극락보전 반야용선도 벽화 하단이 유실되는 등 사찰 곳곳이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94호인 극락보전 뒷벽에 그려져 있는 '반야용선도'는 용머리와 꼬리를 갖춘 배에 일로 왕보살과 지장보살이 중생을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통도사 경내 연화대 옆 소나무들이 쓰러지고 일주문 옆 월영교가 물에 잠겼다. 시탑전 뒤 소나무가 넘어져 차고지와 차량이 파손됐으며. 승가대학 강사 요사채 마당이 폭우에 범람해 물막이를 해둔 상황이다.

통도사 관계자는 "비가 포벽 상부까지 들이쳐서 벽화가 계속적으로 박락된 듯하다"며 "벽화 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록화 사업과 더불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벽화조사 및 보존처리를 계획했다. 문화재청에 관련 예산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태풍으로 인해 유실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경내 큰 고목이 강풍에 쓰러져 전선이 파손되고 기와장이 떨어졌다.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한 창고 건물 지붕이 날아가 복구 중에 있으며, 범어사 진입 도로에 나무들이 쓰러져 일시적으로 통행이 금지됐다.

통도사 극락전 반야용선도 유실
경내 나무들 강풍에 쓰러지기도
밀양 표충사 사찰문 무너져 파손
사찰 전각 지붕 · 문 파손 잇달아
도량 긴급복구 손길 절실한 상황



밀양 표충사의 공양간과 마당을 잇는 출입문이 9월 3일 태풍 마이삭으로 넘어졌다. 사진제공=표충사

범어사는 "현재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어 복구 중에 있다. 말사들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고 있으며, 긴급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명대사 호국도량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도 피해가 심각하다. 표충사에 따르면 9월 3일 새벽 강풍으로 공양간과 석탑 마당을 통과하는 문이 무너졌다. 또한 범종루, 대광전, 우화루 등 전각의 기와가 강풍에 날아가 파손돼 비가 새고 있는 상황이다. 표충사 종무소는 천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어 종무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표충사 관계자는 "도량 가운데서 불자들을 맞이하던 아름드리나무가 강풍에 쓰러지고 차고가 무너져 차량이 파손됐다"면서 "곧이어 태풍이 올라온다는 데 긴급한 복구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부산 기장 천년고찰 안적사(주지 원여)는 기와장이 바람에 날아가 떨어졌고 대웅전 앞문이 강풍에 파손됐다. 주지 원여 스님이 대웅전 앞문을 닫으려는 순간 강풍이 불어 한쪽 문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적사는 지난 7월 23일 부산에 쏟아진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고 공양간이 침수 돼 긴급 복구 중이었으나 또 다시 불어 닥친 태풍에 피해를 입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지 원여 스님은 "나무가 넘어지고 산사태 까지 발생했던 상황에 또 다시 태풍이 불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지난 폭우 때 정부 재난지원에서 종교단체는 제외됐다. 스스로 모든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천년고찰 마하사(주지 정산)는 마이삭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졌고 일주문 옆에 위치한 난간 축대가 부서졌다. 기와장도 파손돼 복구가 시급하다.

주지 정산 스님은 "재난 피해 신고를 신속히 했고 부러진 나무와 대나무 등 도량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또 다시 태풍 예고가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주 법왕사(주지 혜경)는 강풍을 인해 차고가 소실되고 해우소 지붕이 뜯기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산신각 문이 떨어져 나가고 도량 곳곳에 나무들이 부러졌다. 주지 혜경 스님은 "현재 울주군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신속한 도량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 백련암(주지 천도)은 강풍으로 인해 선방채 기와가 떨어지며 태양열 유리판이 파손됐다. 현재 백련암은 폭우로 인해 더러워진 집기류를 정리하고 도량을 정비하며 긴급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부산 사하구 대부암 (주지 선혜)은 사찰 주변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긴급 복구에 나섰다. 주지 선혜 스님은 "현재 일손이 부족하지만 긴급복구에 나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고종 前 종정 혜초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8월 30일 선암사서 엄수됐다.

"태고의 바람따라 어서 돌아오십시오"

태고종 前 종정 혜초대종사 영결 · 다비식 엄수

태고종 제17 · 18 · 19세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기틀을 다진 혜초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8월 30일 순천 선암사에서 엄수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영결식에는 사전 발열검사와 거리두기 등이 지켜진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호명 · 원로의장 도광 ·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등 태고종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와 각 지역 종무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호명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이제 무고안온(無苦安穩)한 극락정토에 계시더라도 종단이 향상일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살펴 주시옵고, 불법이 언제나 왕성하도록 가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추모했다.

이어 원로의장 도광 스님은 "스님께서 주석하셨기에 선암사가 위엄이 있었고, 스님의 계심으로 종조의 종지종풍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암사 도량엔 종도의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하오니, 부디 태고의 바람결 따라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추도사를 했다.

조사에 이어 종도들의 헌향과 분향이 이어졌고, 문도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참여해 주신 대덕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영결식에 이어 위패와 영정, 만장을 앞세운 법구는 평소 스님이 산책하고 수행하던 선암사 도량을 들른 후 경내에 마련된 다비장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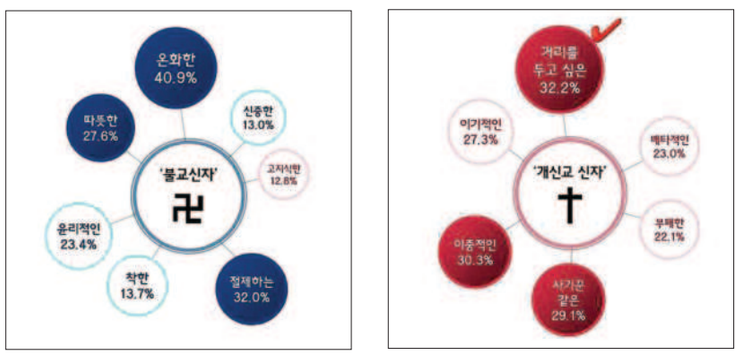
다비장에 도착한 법구는 20여 스님들의 거화와 300여 대중들의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합송과 함께 다비돼 세속의 인연을 다하고 법열에 들었다. 다비를 마치고 진행된 습골을 통해 스님의 사리 71과가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선암사=양행선 광주지사장

코로나 後 "불교, 온화 · 따뜻" 긍정 인식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서
불교 · 가톨릭엔 긍정 응답 높아
개신교 "사기꾼 · 이중적" 평가

"종교 역할 잘한다" 응답 6%뿐
바라는 종교인相 '성숙한 인격'



〈그림〉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조사한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중복응답)
출처=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각 종교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불교와 가톨릭에게는 긍정적으로, 개신교에는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8월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미지는 온화한(40.9%) · 절제하는(32%) · 따뜻한(27.6%) 등의 긍정적 이미지가 많았으며, 가톨릭 역시 온화한(34.1%) · 따뜻한(29.7%) 등의 긍정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개신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싸늘하기만 했다. 국민들은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32.2%)"거나 "이중적(30.3%)"이라고 평가했다.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는 응답도 29.1%가 나왔다.

해당 조사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8~50명 수준으로 발생했던 지난 6월 23~26일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개신교 대국민이미지는 더 추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 · 가톨릭에 대한 대국민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종교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국의 종교단체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질문에 단 6%만의 국민들이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민 중 72%는 "코로나 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솔직히 종교가 한 역할은 없는 느낌"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향후 종교 전망에 대해서도 참여자 중 55%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종교 위상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복수응답)의 65%가 종교계의 부정부패를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지적했으며, △종교계의 집단이기주의 △종교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정치 개입 △종교인 범죄 증가 △이웃종교에 대한 배타성 △인물 부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성숙한 인격(77% · 중복응답)과 높은 도덕성(68% · 중복응답)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 대해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증가는 최근 일부 개신교계의 행보를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서 종교가 한 일이 없다'와 같은 종교계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저하에 대해서는 "이미 3~4년 전부터 탈종교화가 거론되며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일부 개신교계의 행보가 이를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왔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 전반이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찾지 못했고, 자신들의 역할을 부각시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가 남북 평화의 길 열어달라"

이인영 장관, 8월 31일
원행 스님 예방서 밝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가 남북 평화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 추진과 관련, "정부간 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불교계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간 경색국면이 고착화되면서 정부간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가운데, 종교계 등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31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지난해 금강산에서 남북 불교대표단이 만나 새해맞이 행사를 했다. 당시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신계사를 참배하면서 복원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추진키로 논의했다"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중단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특히 전통문화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불사"라며 "남북 협력으로 복원된 신계사에서 의미있는 불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불교계가 세운 원력은 통일의 길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종교계가 먼저 남북 화해의 길을 연다면 대단히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라며 "남북 정부간 관계가 개선되기 이전이라도 불교계가 조불련과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면 통일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 확산 방지위해 법회 중단"

조계종 · 종단협 지침… 대면행사 일체 중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전국 모든 사찰에서 2주간 법회를 전면 중단하는 등 선제적 방역 강화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 사찰의 법회, 강의 등 모든 대면 집합행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2월 20일 1차 긴급지침을 발표한 이래 9월 1일까지 10차례 전국 사찰에 긴급 지침을 시달하며 선제적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도 조계종과 같은 내용의 방역지침을 협회 회원 종단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협 소속 종단 사찰들은 9월 3일부터 2주간 법회, 불교대학 강의, 템플스테이, 합창단 소모임 등 모든 대면 집합 행사를 전면 중단하게 된다.

사찰 상주대중에 대한 일상생활 지침도 내려졌다. 조계종과 종단협은 사찰 대중 스님들과 종무원들은 경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고, 기도와 예불 집전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찰마다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시설과 개인공간 및 물품을 소독하고, 개인위생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사찰 종무원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을 통해 다중밀접공간을 피하고, 고위험시설 출입을 금했다.

사찰 상주대중을 제외한 신도와 외부인의 대중공양과 공용음수대 사용은 중단됐다. 상주대중의 공양 시에도 개인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며, 한쪽 방향으로 앉아 대화를 삼갈 것도 권고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 갈등해소 불교비법 ‘사실확인’”

불교평론 8월 28일 온라인 세미나 화제

박병기 ‘꼬삼비 사례’ 통해
갈등양상 정확한 분석 요구
자비심 아래 구조해결 모색
손원영 교수 개운사 모델로
종교갈등 예방 평화안 제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께서 꼬삼비 수행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처음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실이냐?’ 였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좌우갈등에 남녀갈등, 최근에는 의료파업문제까지 늘어나는 사회갈등에 대한 불교윤리적 대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불교평론이 8월 28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다.

불교평론은 8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한국사회의 갈등, 그 극복을 위한 청문(廳聞)’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학술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불교윤리적 대안’ 발표에서 “우리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 또는 산업화로 인한 휴유증들 속에서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소모적 방식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갈등이 아닌 것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사소한 갈등이 중대한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불교윤리적 관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이 온라인 학술심포지엄 전 인삿말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부처님께서 꼬삼비의 수행자들이 서로 반목하자 이를 해결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 갈등해소의 방법을 찾았다.

박 교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갈등 자체에 관한 사실확인이다. 부처님은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승가에 분열이 생겼다’고 선언하고 해결과정에 들어갔다”며 “우리 사회 갈등도 아직 많은 부분이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성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진정한 갈등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두 번째 단계는 갈등에 내재된 감정을 고려하며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라며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끝없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란 현실에서 친구관계를 유지해온 원수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디가부 왕자의 사례를 통해 부처님은 인내와 자비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세 번째 단계는 사회갈등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제도적 대안 모색”이라며 “우리 사회 갈등 상당부분은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 등 구조적 원인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회 내 빈부격차 확대가 정년연장과 청년취업 갈등 등 세대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만큼 갈등의 감정적 맥락을 살피고 구조적 개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천 개운사 훼불사건에 대해 사과한 문제로 파면당한 손원영 前 서울기독대 교수는 ‘종교갈등 양상과 종교평화모델의 탐색’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손 前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는 종교갈등의 전환기에 있다. 종교평화를 위해서는 한국 종교인구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지닌 개신교와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1996년 1월 개신교인으로 인해 발생한 개운사 훼불사건 이후 개신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시민참여형 복원성금모금과 이후 종교전문가 학술토론회의 레페스 심포지엄은 ‘개운사 종교평화모델’로 훌륭히 종교평화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의 ‘한국사회의 정치적 갈등의 기원과 양상’ △노중기 한신대 교수의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과 특성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불평등에 관한 세대 - 계급갈등의 교차와 전위’ △이진경 서울과기대 교수의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의 문제’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의 ‘한국사회의 젠더갈등과 해소방안 모색’ 등도 발표됐으며 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시청했다.

첨단기술들로 부처님 안을 살펴보니…

국립중앙博 보존과학 특별전
불상 CT촬영 등 성과 전시
재개관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전 자료 온라인서 공개

최근 문화재 보존에도 첨단 기술들이 동원된다. 의료진단에서 많이 활용되는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CT, Computed Tomography)’이 대표적이다.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은 불보살상을 2012~2017년 CT촬영해 관련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재)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7년 남원 실상사 건칠불상 조사 중 CT촬영을 통해 고려 은니사경을 발견해 화제가 됐다. 이 같은 문화재 보존과학의 성과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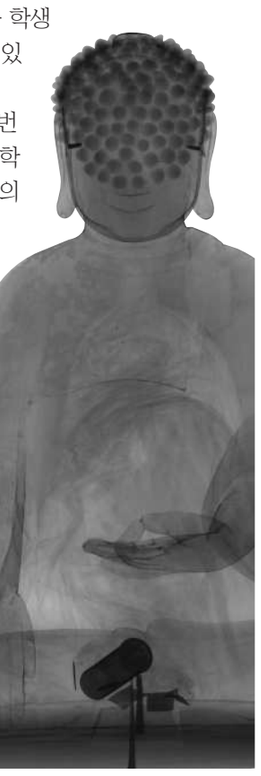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보존과학부가 기획한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특별전이 준비를 마치고 재개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첨단과학으로 밝혀낸 문화재의 비밀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번 특별전은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 등 57건 67점이 전시된다.

전시 구성은 3부로 구성된다. 이중 제3부 전시인 ‘문화재를 진찰하다’는 불보살상에 대한 CT촬영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 전시에 소개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목조석가불좌상’은 CT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종이나 직물로 보이는 것과 후령통(복장물을 담든 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는 11월 15일까지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박물관 개관이 금지돼 현재는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특별전 전시 유물을 영상자료로 제작해 박물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우선 공개키로 했다.

영상 자료는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을 비롯해 교과서에서 소개된 문화재가 대거 포함되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우리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석해 기존의 전시와는 전혀 다르게 문화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돼 박물관이 재개관하면 특별전시실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때까지 특별전 관련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이 11월 15일까지 개최하는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특별전에서 소개되는 ‘조선시대 목조석가불좌상(국박 소장, 사진 왼쪽)’과 이를 X-선으로 촬영한 모습(사진 오른쪽). 내부 후령통이 확인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취임 10월 6일

원행 스님 “신도회 전통 잘 잇길” 당부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6·27대 회장 이취임식이 10월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주윤식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이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주 신임 회장에게 중앙신도회 전통을 잘 살려 나갈 것을 주문했다.

원행 스님은 “이기흥 신도회장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중앙신도회가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신임 회장이 이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고 종단과 사부대중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다. 신임회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서로 화합하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종단과 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신도와 스님들 간 가교 역할을 하여 전국적인 조직화를 통솔해 불교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해달라. 특히 백만원력 결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윤식 27대 신도회장은 “종단과 최대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자리서는 이·취임법회와 27대 신임임원 구성 등이 보고 됐다. 이취임법회는 10월 6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며 조계종 총무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신도회 임원 등이 참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기흥 26대 신도회장의 퇴임 간담회도 9월 23일 오전 11시 30분 AW 컨벤션센터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 터 뷰 평등버스 순례 회향 양한웅 사노위 집행위원장

“佛法이 곧 차별금지법” 깨달아

평등버스에 탑승한 고정멤버 13명 중 한 명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을 만나 순례 회향의 소감을 들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긍정여론을 이끌어온 평등버스의 핵심멤버로 손꼽힌다.

〈편집자 주〉



차별금지법 제정의 뜻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8월 17일 서울을 출발한 ‘평등버스’가 전국 순례를 마치고 8월 27일 회향했다. 무려 12박 13일의 기나긴 여정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 26개 도시를 순회하며 사람들을 만났다.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모든 도시의 시청 앞과 번화가, 상징적 장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플랜카드를 펼쳤다.

성적소수자와 여성,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과 택시 해고자 연대, 금속노조 파업노동자, 에이즈 환자 등 차별의 극한에서 증오와 혐오, 차별의 극한에서 편견과 싸워 온 이들과 마음을 나눴다.

공식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전국순회 일정이지만, 평등버스를 만난 이들에겐 용기와 이해를, 버스에 탄 이들에게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새삼 뼈저리게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였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단언했다.

“평등버스 순례를 하는 동안 니까야 경전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차별의 극단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버스에 타 이동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곱씹었죠. 제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양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우리사회에 증오와 혐오가 사라지기

버스 이동중에도 경전 공부
법 제정, 사회 변화 첫걸음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첫걸음 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다.

그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나이, 성적지향을 포함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일차적인 목적은 개인과 조직, 단체가 표출하는 편견과 증오, 혐오의 언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기대효과는 바로 차별적인 마음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평등버스 멤버 중 상당수가 성적소수자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존재 가치를 말살시키는, 그야말로 살인에 가까운 수위였습니다. 우리사회 차별의 극단에 있는 분들이 한평생 겪어 온 뿌리 깊은 증오와 혐오를 눈앞에서 확인한 셈입니다.”

평등버스는 12박 13일간 차별의 현장에서 고초를 겪으며 26개 지역을 지나온 셈이다. 그런만큼 성과도 놀랍다. 평등버스를 계기로 10곳 이상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지역 지부’가 만들어지는 쾌거를 이룩한 것.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된 셈이다.

양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마음이 담긴 단어 선택과 행위를 억제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혐오와 증오, 차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평등버스를 계기로 평등한 세상을 염원하는 전국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만큼, 이번에야 말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차별없는 세상’ 위한 인식교육 책자 배포

조계종 종평위, 9월 1일 발간
2000부 제작해 전국사찰 등에

조계종이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인식교육용 책자를 제작해 전국 사찰과 불교대학 등에 배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취지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9월 1일 차별금지 교육용 소책자 ‘평등을 실천하는 희망의 가르침, 불교’를 발간했다. 책자는 2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제하의 여는 글을 시작으로, 불교의 평등사상과 종교차별 사례,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차별금지법에 관한 Q&A 등이 담겼다.

특히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은 평등 승가의 원칙’ ‘나와 같이 남을 사랑하라는 동체대비의 가르침’ 등을 통해 불교의 평등사상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소개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194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했던 종교차별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차별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을 소개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간단한 문답을 소개, 진정한 평등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마지막 챕터로 구성된 ‘종교차별 예방 및 대응요령’이다. 공직자의 종교편향 및 차별언행, 공공시설물의 종교편향적 표현 등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한 대표적인 예를 별도로 기재했을 뿐 아니라, 신고방법과 이후 구제절차를 소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했다.

종평위는 “〈평등을 실천하는 희망의 가르침, 불교〉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불교적 시각에서 당당하게 차별금지를 주장하고 사회적 불의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등을 실천하는 희망의 가르침, 불교〉는 2000부 제작돼 전국의 주요사찰과 불교대학, 대불청 지구, 대불련 지회, 중앙승가대, 전국비구니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고성 전통사찰 순례로 '休' 하세요

경남 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

9월 11일~11월 22일, 3차로
비대면 선착순 20명 접수 중
인문학콘서트 및 템플스테이
"불교문화 알 수 있는 시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고성 연화산 옥천사가 9월 12일~11월 22일 '경남 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를 개최한다. 사진은 고성 문수암 전경이다.

코로나로 지친 현대인과 불자들의 쉼을 위한 산사순례가 진행된다. 고성에 위치한 천년고찰이 지닌 고즈넉함에 힐링이 되는 시간이다.

고성 연화산 옥천사(주지 원각)가 9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경남 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 (이하 순례여행)을 개최한다. 순례여행은 1박 2일로 3차에 걸쳐 진행되며 템플스테이 및 인문학 콘서트가 함께 진행 돼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일정은 1차 9월 12~13일, 2차 10월 10~11일, 3차 11월 21~22일이다. 9월 일정은 조계종에서 발표한 코로나 예방 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인문학 콘서트 강의와 사찰 순례는 옥천사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업로드 된다. 그 외 10월과 11월 일정 참가자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선착순 20명으로 제한적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인문학 콘서트 1차는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가 '고성 근대불교와 5대 전통산사'를 주제로 강연하고, 2차는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가 '고성불교의 역사와 5대 전통산사'를, 3차는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이 '고성불교의 사상과 5대 전통산사'를 주제로 강연한다. 산사 순례는 9월 13일 옥천사와 계승사, 10월 11일 문수암과 운흥사, 11월 22일 장의사 순으로 진행된다.

전통사찰 옥천사는 쌍계사 말사이며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대사가 화엄전교십찰의 하나로 창건됐다. 옥천사라는 이름은 대웅전 옆에 감로수가 나오는 옥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계승사는 금태산 기슭에 자리했으며 신라 문무왕 15년(675)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고려말 이성계가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수행하며 조선 창건의 꿈을 키웠다고 알려진다.

문수암은 무이산에 위치했으며 신라 성덕왕 5년(706)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기암절벽과 남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을 볼 수 있어 명승지로 유명하다.

운흥사는 와룡산 향로봉 중턱에 위치한다.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임진왜란 당시 지역 승병의 본거지였으며 사명대사의 지휘 아래 6000여명의 승군이 왜군과 전투를 벌인 호국성지도량이다.

장의사는 거류면 거류산 중턱에 자리한다. 신라 선덕여왕 1년(632)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기암괴석이 웅장하게 치솟아 울창한 수목과 더불어 조화를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옥천사성보박물관 관장 원명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은 천년 넘게 이어온 고성의 대표적인 5대 전통산사인 옥천사, 운흥사, 문수암, 장의사, 계승사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이다. 옥천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느껴보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명사와 함께하는 인문학콘서트를 통해 고성의 불교문화를 깊이 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은 고성군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055)673-4951

'제주 4·3과 불교' 순회전시회 금산사서 개막

9월 16일까지 금산사 보제루 전시

제주 4·3항쟁 72주년을 맞아 큰 피해를 입었던 불교계의 아픈 역사를 담은 기록물과 상생을 염원한 예술작품들을 모은 전시회가 서울, 대구에 이어 김제 금산사에서 열리고 있다.

8월 27일부터 9월16일까지 금산사 보제루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조계종 사회부, 금산사, 제23교구 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등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제주불교, 동백으로 화현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5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처음 열려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전시회는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종교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전무해 더 이상 묻어 둘 수 없다는 공감에서 기획됐다. 제주 관음사와 4·3희생자추모회 등은 제주 4·3사건을 회고하고 불자 및 시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국 순회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시회는 이수진(회화), 윤상길(도예), 김계호(사진) 작가가 4·3사건 피해 현장을 순례하고 생존자, 관계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작품 41점과 도자기 공예품 5점 등을 선보인다.

순회전시회는 8월 12~26일 대구 리운갤러리를 시작으로 8월 27일~9월 16일 김제 금산사 보제루, 9월 18~29일 남양주 봉선사 육화당, 10월 8~21일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 야외회랑에서 각각 열린다.

8월 30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70여 년 전 스님 16명과 사찰 35개소가 불타는 아픈 역사로 제2의 무불(無佛)시대를 초래했던 야만적인 역사를 밝히고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교훈과 함께 지옥 중생을 보살피고, 총질했던 자들의 두터운 업보를 용서하기 위해 전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산사서 열린 4·3 불교순회 전시전 모습. 시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발의와 함께 미래통합당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이 있어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번 순회전시에는 이수진(회화), 윤상길(도예), 김계호(사진)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계호 작가는 4.3 현장을 순례하며 기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토벌대의 야만적인 탄압을 피해 흥룡사 경내 용장굴에 피신했던 제주민들이 고통을 동굴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통해 암흑과 촛불로 부처님의 자비와 생명의 고귀함을 표현했다.

보리예술가로 알려진 이수진 작가는 70여 년 전 제주의 주요 식량 작물인 보리를 소재로 야만의 역사와 아픔을 작품에 담는다. 4·3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타서 사라진 마을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란 보리줄기와 4·3학살터에서 자라난 숨비기나무 열매를 채취해 보릿대를 염색해 4·3의 아픔을 표현했다.

윤상길 작가는 제주라는 섬에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쫓기고, 숨고, 죽임을 당한 넋을 위로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작업 전 기도와 명상을 통해 받은 느낌을 토대로 전통 망댕이 장작가마에서 백분토와 조합토, 무유, 백유 등의 재료를 이용해 중생구제가 화두였던 스님들의 '순교' 등을 표현하며 극락왕생 발원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대학 동문, 코로나 방역 나섰다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8월 30일 방역 봉사


금정불교대학 동문불자들이 범어사 전각을 소독하고 있다.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신기열)는 8월 30일 범어사 경내 일대에서 '범어사 주변 환경 정화 및 방역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러내리는 폭염, 모두가 시원한 곳을 찾아 쉬는 주말이지만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원들은 청소도구를 손에 들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량을 발원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도량 곳곳은 정화되고 소독이 완료됐다.

도량 환경 정화에는 범어사 포교국장 해륜 스님과 신기열 총동창회장, 서종현 수석부회장, 정봉호 사무총장 등 회원 50여명이 동참했다.

회원들은 3조로 나눠 버스정류장부터 어산교, 부도전, 휴휴정사, 계곡 일대 등 도량 곳곳을 청소했고 신도들이 많이 찾는 설법전과 공양간의 방역도 마무리했다. 문고리와 손잡이 소독은 더욱 철저히 진행했고 경내 잡초 제거, 계곡을 방문한 일반인들이 버린 오물도 빠짐없이 수거했다.

총동문회는 도량 수호를 위한 청소 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은 8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정기 봉사일로 정해 청소를 실시하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으로 도량 보호에 앞장서 의미를 더했다. 이뿐 아니라 범어사 주요 법회 및 행사에서 총동창회 회원들은 발열체크 및 소독 등으로 방역 봉사를 쉬지 않고 있다.

포교국장 해륜 스님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수고해주시는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4회 가야효문화축제, 청소년 위한 백일장 눈길

'청소년 창작미술경연 및 글짓기 대회' 작품 공모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이 청소년 창작미술경연 및 글짓기 대회 작품을 공모한다. 가야문화진흥원은 매년 가야효문화축제를 개최하며 가야문화를 널리 알리고 효의 정신을 강조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청소년 백일장으로 행사의미를 알린다.

대회는 '효'와 '가야문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미술창작 부문과 글짓기(운문, 산문) 부문을 접수 받는다. 공모작 접수마감은 9월 11일까지 이며 작품은 이메일(purnick@naver.com)과 우편(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310, 2층)으로 보내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부산, 경남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청소년은 모두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9월 12일 진행되며 시상결과는 가야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3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시상은 종합대상에 (사)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상과 문화상품권 3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최우수상은 경상남도 교육감상, 경상남도지사상, 김해시장상, 가야대학교총장상 및 부상이다. 시상은 모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사장 송산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장 할 수 있는 진일보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효와 가야문화에 대해 돌이켜 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나눔으로 전한 사무실 이전 개소

어린이 및 청소년 계층 포교 후원금 전달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8월 28일 이전 개소식 및 후원금 전달식을 새롭게 문을 연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전 개소식은 테이프 절단식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및 인사말에 이어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특히 계층 포교 후원 지원금을 사단법인 동련,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 각 100만원, 총 30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회장 원허 스님은 "회원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힘을 보태주셔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서보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은 "이전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저도 옆에서 지켜보며 성장을 발원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겠다. 좋은 인연의 자리로 성장하시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선향다회 회원을 대표해 한복순 회장은 "스님들의 활동과 포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고 인사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2011년 1월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그 해 2월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개관식을 진행, 10여 년 간 운영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륜불자교수회 16·17대 회장 이취임식



불자교수들의 신행과 학술활동 및 전법활동의 중심인 법륜불자교수회가 8월 30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법륜불자교수회는 지난 1988년 창립하여 32년간 60여회의 수련회와 140여회의 성지순례법회 및 불교문화의 만남과 저술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불교인문학포럼 개최 등으로 불교위상을 높여왔다.

김성규 전임회장은 이임사에서 "불교활동을 함께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법륜불자교수회의 창립정신으로 불교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저술활동과 지역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경 17대 신임회장은 "30년 여년 불교발전에 매진한 김성규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불자교수회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에 대한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정부시책의 감염병의 확산예방과 조계종단의 방역수칙 강화 일환으로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과 주지 능종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강정규 대구사원연합회 신도회장 및 대구지역의 신행단체장이 참석했다.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은 "불교중흥에 크게 공헌한 법륜불자교수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깊은 불심과 신심으로 법륜불자교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통도사, 버섯 사진 통해 자연의 소중함 알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9월 1일 경내 명월료에서 영남 알프스 야생버섯 사진전 '아 여기 참모습'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방장 성파 스님과 영남 알프스 야생버섯 연구회 회원들이 영남 알프스 일대와 통도사 근처에서 본 버섯들을 위주로 촬영해 담았다. 전시사진에는 평소 보기 힘든 꽃송이버섯, 경단 버섯 등 희귀한 버섯 등이 촬영 돼 눈길을 끈다.

버섯은 자연의 청소부로 불리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도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미학에 담아 전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영남 알프스 야생버섯연구회'가 결성됐으며 통도사에서 첫 전시를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최석영 울산대 명예교수, 김언배 교수 등 사부대중 30여명이 동참했다. 전시는 9월 20일까지다.

방장 성파 스님은 "발표 되지 않은 희귀한 버섯이 많이 발견됐다"며 "연구회에는 생태계 쪽 연구자 뿐 아니라 인문학 및 예술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한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의보고를 널리 공유할 수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버섯이란 작은 대상을 통해 생태계의 흐름과 생명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석영 교수는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에 버섯이 있다. 그 가치를 널리 알기를 바란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현불 논단 |

‘STOP!’ 가짜뉴스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보+전염병 합성어 ‘인포데믹스’
부정확 정보들 무분별 확산 의미

한국도 가짜뉴스 사회문제 대두
가짜언론사 · 가짜기사 범람 상황

“유력인 말도 진실로 받지말라”
부처님, 자의적 정보 이해 경계
현재 ‘인포데믹스’가 가장 위험
거짓되고 삿된 말, 사회적 반칙

요즘 ‘에피데믹스(전염병)’ 보다 ‘인포데믹스(Infodemics)’라는 말이 유행이다. ‘인포데믹스’는 2003년에 처음 언급된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로, 근거 없는 각종 부정확한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IT 기기의 발달로 인포데믹스의 위험도는 한층 더 높아졌다. 휴대전화에 SNS 기능이 탑재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 속도가 실시간화되었고 그에 따라 소식의 파급력도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기에 거름망 없이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전파됐고 이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불안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몇 해 전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이 선정된 적이 있다. 이 단어를 선택한 옥스퍼드 영어사전 측은 단어 사용 빈도가 전년 대비 스무 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선정이유를 밝히고, ‘포스트 트루스(post-truth)’를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접두사 ‘포스트(post)’에 대해 시간 순서상 진실 이후라는 뜻이 아니라 진실이 무의미할 정도로 ‘퇴색’ 되었다는 의미라고 부언 · 설명하면서 믿을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시대가 도래했음을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거짓과 가짜로 도배된 정보가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가짜뉴스 판별법’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7가지 방법’ 등의 꼭지가 지면에 등장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변상욱 YTN 앵커는 ‘가짜뉴스’ 문제를 ‘가짜언론사’와 ‘가짜기사’로 크게 둘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언론사로서 취재와 분석, 객관성 · 타당성에 대한 스크린 장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버젓이 기사를 생산하는 ‘가짜언론사들’과 기성 언론에서 마저 쏟아져 나오는 황당한 기사들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부처님은 〈깔라마경(A3:65)〉에서 마을을 방문한 소위 지식인들(사문 · 바라문)의 온갖 주장에 골머리를 앓다가 온 깔라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있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어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법들은 현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고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정보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더 근원적이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마음이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선입견 없는 마음으로 정보를 대해야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코로나19 역학 조사관이 이렇게 대답했다.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인포데믹스’라고. 그 말에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제발 가짜뉴스 그만 좀 퍼뜨립시다”

그렇다. 바이러스 폭탄으로 팍팍한 이 시대에 그것보다 더 센 ‘말(言) 폭탄’까지 터뜨리는 것은 너무 큰 사회적 반칙이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쓸쓸하고 아름다운 부부싸움

재활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법당을 자주 찾는다. 보호자들은 재활을 받고 환자와 함께 법당에 들러 부처님을 뵙고 가기도 하고, 환자를 돌보다 지친 그 가족들은 부처님 품안에서 잠시 영혼을 쉬기도 한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60대 후반의 거사님은 목숨은 건졌으나 온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의식은 있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들을 수 있기에 그의 아내는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눈물을 달고 살았다.

저녁 즈음 그의 아내가 법당을 찾았다. “스님, 큰일 났어요. 남편이 음식을 거부해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서럽게 울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하고 자초지종을 묻자, 한참을 흐느끼다 병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보살님은 원래 비위가 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남편을 돌보는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들기 짝이 없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별난 후각의 예민함과 비위 약함이 남편을 돌보는데 큰



그림 · 최주현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변을 보았는데 유독 그 양이 많았다. 아내는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올라오며 자신도 모르게 “아휴, 많이도 쌌네”하는 짜증 섞인 말을 밖으로 내뱉었다. 모두 정리한 뒤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남편이 눈을 꼭 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당황해 허둥대며 둘러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남편은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이후로 ‘피딩’으로 음식을 주입하려하면 온몸으로 강하게 거부했고, 억지로 넣다보니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남편에게 용서를 빌며 제발 음식을 먹어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아내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다. 눈을 꼬옥 감고 있는 거사님에게 “거사님”하고 불렀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여보, 스님 오셨어요”하고 말하자 감은 눈이 파르르 떨렸다.

“거사님 많이 화나시고 속상하셨죠. 보살님이 법당에 와서 자기가 잘못해서 거사님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펑펑 울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자 감은 눈이 더욱 크게 떨렸다. “거사님, 병간호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 안하면 좋을 소리도 하게 되요. 거사님, 아내의 실수를 이해해주세요.”

옆에서 훌쩍이는 아내의 소리를 들으며 거사님도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내의 잘못했다는 소리와 남편의 소리없는 흐느낌이 들려왔다. 부부의 화해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3천배 철야정진’ 꾸준히 이어지길

매년 부처님오신날 즈음이 되면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 시민과 불자들이 모인다.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난치병 환아들을 돕기 위해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앞두고 여는 ‘난치병 환아돕기 3000배 철야정진’이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3000배 철야정진’은 동참한 이들이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절을 올리면, 한배 당 100원의 기금으로 환원돼 치료비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2001년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0년이 지난 지금 불교를 대표하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자, 종교와 관계없이 건강법으로 알려진 ‘절’이 누군가에겐 희망을 선사하는 매개가 된 셈이다.

한 사람 한사람의 1배 정성이 차곡차곡 쌓여 누군가에겐 생명을 되살리는 기적의 빛이 됐으니, 그 자체로 새삼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다.

실제 20년간 1만5000여명의 정성이 모였고, 그 정성은 13억 2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금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으로 무려 445명의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살아갈 희망을 만났다. 그 희망은 시급한 수술을 앞두고 수술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부모에게, 매일매일이 고통이던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든든한 의지처가 될 것이다.

매년 작은 정성을 모아 큰 나눔으로 회향했던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부처님오신날 사찰에 장엄한 연등 아래서 일제히 몸을 낮추는 장관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대신 온라인 모금을 통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9월 한달간 진행하는 온라인 모금을 통해, 지금 이순간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희망과 기적, 자비의 빛이 이어지길 바란다.

차별금지법, 세상 바꾸는 첫 걸음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우리사회 현안을 관통하는 뜨거운 감자다. 국민 여론은 이미 찬성으로 모였지만, 일부 개신교계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개신교 눈치보기식 법안 제정은 안된다”며 “더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미있는 움직임이 일었다. 12박 13일, 전국을 순회한 ‘평등버스’다. 서울에서 충청을 지나 경상도와 전라도, 경기도를 거쳤다. 총 26개 도시를 방문해 지역 민심을 들었고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음을 나눴으며, 각 지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는 격려와 연대를 약속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택시해고자연대, 한진중공업 파업 당사자 등 차별의 극단에서 투쟁하고 편견에 맞섰던 이들도 만났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절대 물러서서도, 포기해서도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증오와 혐오, 차별에 맞서는 동안, 차별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절실한 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평등버스 탑승자 13명 중 한명이다. 12박 13일의 긴 여정에 함께하면서 우리사회 소수자들과 마음을 나누고 울고 웃었다. 그가 내린 결론 역시 하나로 귀결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첫 걸음”이라는 것. 평등버스의 전국 순회는 회향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속 평등버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다시한번 마음과 원력을 모아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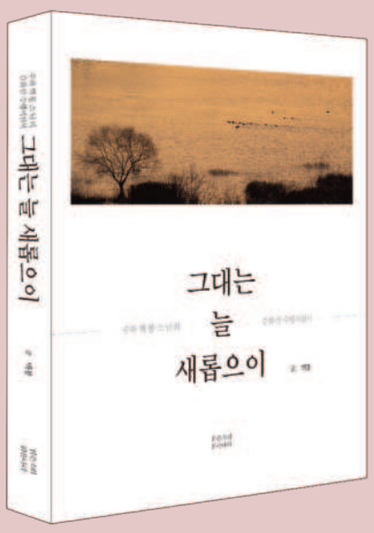
수좌 벽봉스님
간화선 수행 지침서 『그대는 늘 새롭으이』 및
선서화집 『소식消息』

출 판
기념회
—
선서화
전람회

출판기념회
2020년 9월 22일(화)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10층)

2020년 10월 4일(일) ~ 5일(월)
처음 여는 날. 10월 4일(일) 오후 2시
전시 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수좌 벽봉스님의 오랜 수행의 결과물.
넘치지 않을,
부족하지 않을 간화선 수행 지침서를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 수행 지침서
『그대는 늘 새롭으이』
글. 벽봉 | 308쪽 | 20,000원

결제結制와 해제解制,
그리고 입선入禪과 방선放禪의
간극을 그림과 활구로 풀어놓은
선화집이
수행자와 재가불자들에게
일침으로 다가갑니다.



선서화집
『소식消息』
글 · 그림. 벽봉 | 108쪽 | 18,000원

단행본 『그대는 늘 새롭으이』에는 부록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명상도 실려 있습니다.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문의. 051-255-0263 / Fax. 051-255-0953 / 010-3564-3725 / www.puremind-ms.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9/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청밖의 108요답)	무진 황경환	현대불교신문	6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7	요가디피카(아행가요가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현천스님	선요가
3	달라이라마의 입보리행론 강의	달라이라마/이종복	불광출판사	8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생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9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뻰첸라마 롭상예쎄	운주사
5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책세상

행복한 세상 향해 꽃 한 송이 피우자



백만원력-한 송이 꽃을 발원하며
원행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부처님 · 성현 가르침
21개의 이야기로 엮어
시대의 마음가짐 법문
행복 위한 '마음실천법'
백만원력결집 동참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한다.

책 〈백만원력-한 송이 꽃을 발원하며, 이하 백만원력〉는 부처님과 옛 성현들의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마음 실천법'을 제시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열자(列子)〉의 '탕문(湯問)' 편에 나오는 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고사입니다. 지극하고도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은 결국 큰 성과를 이루고야 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나온 지 이천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잊히지 않고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회자되는 까닭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책은 〈열자〉 속 '우공이산'이란 고사로 문을 연다. 우공은 곧 혜공(慧公)이라는 것이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은 많이 배워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착한 심성으로 누가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인 것이다. 그 우직함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힘이다. 백만원력결집의 발원과 그 맥이 같다. 바른 원력을 발원하는 백만 명의 불자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백년대계를 세워 실천해 나간다면 한국불교 중흥은 이뤄질 것이며, 더 나아가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장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이다. 책의 키워드인 백만원력결집, 그것은 백만 송이 서원의 꽃을 말하며 그 서원의 꽃은 우리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며, 그 꽃은 결국 세계로 퍼져 나가 세계일화를 피워낼 것을 또한 믿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백만원력결집의 한 송이 꽃을 발원하며 펴낸 〈백만원력〉은 원행 스님이 부처님과 성현들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틈틈이 노트에 적어두었던 내용들이다.

책 〈백만원력〉은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백만원력결집 불사를 불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 책을 통해 만나는 인연을 백만원력결집 동참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행복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함께 피우자는 것이다. 책을 구성하고 있는 21개의 이야기는 모두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한 에세이이면서 법문이다.

"당신이 듣고 싶다면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천하지 못할까 걱정이 군요. 만약 당신이 듣고 굳건히 실천해간다면 공자님도 될 수 있고, 노자님도 될 수 있고, 또 부처님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도 믿지 않고, 믿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원행 스님은 부처님과 옛 성현들이 남긴 가르침을 통해 바른길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던 각자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한다. 특히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현실에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설한다. 즉 우리를 살게 하는 수많은 '덕분보살'이 있기에 우리는 이만큼 살고 있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덕분보살'인 것이며 충분히 그 역할을 넓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원행 스님이 펼치고 있는 '백만원력결집' 불사는 2019년에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청사진으로 시작됐다. 천만 불자의 정성을 하나로 모으는 불사는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불사임을 강조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4대 숙원사업은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세우고, 천 년 넘게 넘어져 있는 경주 남산 열암곡의 마애부처님을 세우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법을 전할 군법당과 도심포교당을 세우고, 전법과 수행에 전념하신 분들을 위한 불교병원 · 요양원을 세우는 것이다. 하루 100원의 보시가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보시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책 〈백만원력〉에서도 원행 스님의 '우직한 발걸음'이 보인다.

원행 스님은 2018년 11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 불교를 열겠다'는 발원으로 취임 이후 백만원력결집 불사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 태공 월주 대종사를 은사로 1973년 모악산 금산사에서 출가했다. 안국사와 금산사 주지, 본사주지협의회장 등 주요직을 역임하고 안국사, 금당사 회주로서 가람수호와 포교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회통'의 탄허 '사상' 집중 연구서



탄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
문광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8천원

민족사학술총서 73권 〈탄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이 출간됐다. 책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고승인 탄허(呑虛, 1913~1983)의 사상에 관한 연구서로, 탄허 스님 전공 국내 1호 박사인 문광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한국학중앙연구원)을 엮은 것이다.

책은 탄허 스님의 유교 · 불교 · 도교 · 기(기독교)를 융합하여 일이관지한 '사교 회통 사상'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고찰했다. 탄허 스님의 사상을 단편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얼개와 일관된 사상체계로 보았다.

민족사학술총서 73권 출간
문광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사교 회통 사상' 집중 고찰

또 그의 회통사상을 동양의 3교와 더불어 기독교까지 확장하여 고찰했다. 다시 말해 책은 각기 독자성과 나름의 자기완결성을 가지고 별도로 존립할 수도 있는 선사상, 화엄 사상, 역학 사상, 유학 사상, 노장 사상, 기독교 사상, 간산 사상 등을 '사교 회통'이라는 하나의 얼개와 '심성(心性)'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수렴하여 연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허 스님의 학술과 사상이 거대한 유기 체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밝혔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연기(緣起)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등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탄허 스님의 생애를 '회통 사상의 형성'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출가 전의 학통과 출가 후의 법맥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그의 회통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완성되어 갔는지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탄허 스님의 회통 사상의 근본 원리를 선사상과 화엄사상을 통해 추출했다. 먼저 '회통'의 일반적인 의미와 탄허 스님이 말하는 회통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 살폈다. 한국불교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회통 사상의 역사를 간략히 검토하고 그가 영향 받은 원효, 최치원, 함허 등의 회통론을 고찰했다. 원효의 화쟁회통의 정신과 최치원의 포함삼교(包含三敎)의 학술은 그의 회통론의 근거가 됐고, 함허의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는 언명이 그의 회통 사상의 상징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역학, 유학, 노장학, 기독교를 회통한 사교 회통 사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탄허 스님의 삼교의 말세론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다가올 지구의 미래에 대한 예견인 미래학, 그리고 한국의 민족적 역학인 김일부의 〈정역〉에 대한 그의 독자적 해석을 분석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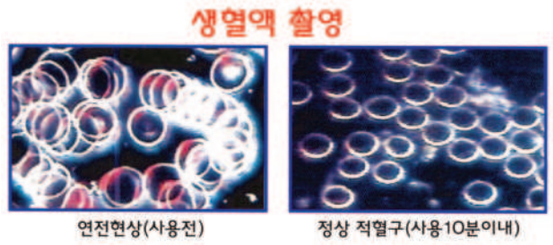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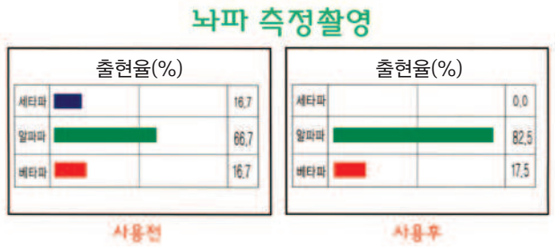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발뒷꿈치 각질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2개 = 3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2천년 불교유적 인근 영빈관 건립 '논란'

인도, 톳라콘다 인근 12헥타르 규모로 추진

'문화유산 훼손' 우려 확산
불교계 · 시민단체 등 반발
미발굴된 구역에도 악영향
정부측 "역사적 가치 염두"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 된 불교 유적지 인근에 내빈들을 위한 영빈관(迎賓館)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불교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활동가들과 불교 단체들은 정부의 이 프로젝트가 불교 유산을 훼손할 수 있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구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8월 28일 더 힌두(The Hindu)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동부 해안 안드라프라데시주(州) 내의 활동가들과 불교 단체들은 고대 톳라콘다(Thotlakonda) 불교 복합 단지 인근에 VIP들을 위한 12헥타르 규모의 게스트하우스와 숙박시설을 건설하려는 주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드라프라데시주의 가장 큰 도시인 비샤카파트남에서 약 15km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톳라콘다 불교 단지는 기원전 2세기와 기원후 2세기 사이에 번성해 3세기 말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톳라콘다는 바비콘다 · 파뷸라라콘다 불교 복합단지 인근에 나란히 생겨났으며,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 인도 불교를 전파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고대 도시 칼링가(Kalinga) 지역에 속해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온 승려들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 이곳을 순례했다고 전해진다.

주 정부는 "역사적 보호 가치를 지닌 곳은 개발 예정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광부처 관계자는 지역 언론들을 통해 "영빈관 추진이 해당 유적지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정된 건설 부지는 톳라콘다에서 1km 떨어져 있어 유적지에 미칠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문화재 보호에 전념한다. 영빈관은 보호구역에서 1km이상 떨어져 있다"며 "우리는 불교 국가들로부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근 불교 유적지에서 할 수 있는 위빠사나 명상과 불교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톳라콘다에 있는 마하(Maha) 부도탑을 복원해 왔고, 이는 유적지 보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대 톳라콘다 불교복합단지 인근에 VIP들을 위한 12헥타르 규모의 게스트하우스와 숙박시설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출처=thenewsminute.com

반면 활동가들과 불교 단체들은 톳라콘다를 비롯한 주요 불교 복합단지 인근에서의 어떤 개발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구역에서 초기불교 시대의 풍부한 불교 유산이 발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정부 관료이자 사회 활동가인 E.A.S. 사르마(E. A. S. Sarma)는 "톳라콘다 인근은 대부분 아직 미개척된 상태로, 고고학적 유적이 더 풍부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영빈관 건설 예정 부지에도 고고학 · 역사학적으로 보호돼야 할 지역이 포함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불교기념물보호위원회의 코타팔리 벤카타라마나(Kothapalli Venkataramana) 위원은 주 정부가 의도적으로 톳라콘다 인근 보호 및 발굴 조사 지역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톳라콘다 주변 발굴 구역과 관련된 토지기록이 수년에 걸쳐 변경됐다. 발굴 구역은 원래 1200헥타르 규모에 달하며, 이중 최소 240헥타르 구역이 영빈관 건설 예정 부지에 속한다"며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주 정부 관계자들이 보호 조사 지역을 불과 48헥타르로 줄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영빈관 건설 예정 부지 중 최소 240헥타르에서 실제로 불교 건축물이 발견됐다"며 "주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무리한 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티베트 불교의 '중국화' 강조

8월 30일 공산당 지도부에 "불교, 사회주의 적응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 불교의 '중국화'를 재차 강조했다.

8월 30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중국공산당 중앙 티베트 업무 좌담회에서 당 · 정 · 군부 지도자들에게 "티베트에서의 공산당의 역할을 강화해 티베트족들을 더 잘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티베트 불교도 사회주의와 중국의 상황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인도와의 국경 충돌이 빈번해 티베트에서의 분리 독립 운동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티베트 지역은 중국과 인도 간 국경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티베트 분리 독립 운동과 함께 중국에게 큰 부담을 안겨 주는 상황이다.

시 주석은 "티베트 국경에서의 방어를 강화해 항구적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들에 대한 정치 · 이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에 주력해야 한다. 또 주민들이 분리주의 척결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확고한 요새'를 수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이어 티베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티베트 자치구 내 학교에서 사상과 정치 교육을 강화해 전 과정에서 애국주의 정신을 관철해야 한다"며 "공산당과 신중국, 개혁개방, 사회주의 발전, 티베트 지역과 중국 관계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후 주변 국가들을 침략, '중국화'를 시행해 왔다. 불교 국가인 티베트는 이에 격렬히 저항하다 1951년 '자치구이지만 중국 땅'이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티베트 자치구에 대한 탄압을 자행해, 티베트는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재해시 피난장소로 사찰 지정해

과밀방지 위한 대안 일환
전국 산재한 사찰이 최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채 이어지는 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이어지는 일본. 일본의 한 지방도시에서 재해시 주민들의 피난을 위한 시설로 사찰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8월 20일, 일본의 'CBC뉴스' '아사히 신문'은 피난시설로 활용되는 사찰들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중부에 위치한 아이치(愛知)현의 세토(瀨戶)시는 20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에 소재한 사찰들을 재해시 임시피난장소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불교계와 충분한 협의 끝에 결정된 이번 사항에서 시내 50개소의 사찰 가운데 총 14개소의 사찰들이 임시피난장소로 지정됐다.

사찰을 임시피난장소, 혹은 정규피난장소로 지정한 사례는 일본 각지에서 볼 수 있다. 사찰의 경우 지역에서 랜드마크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찾기 쉬우며,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경내에 무너지기 쉬운 조경이 드문 점에서 재해시 피난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꼽힌다.

세토시측은 "현재 시내에 지정된 피난장소는 50여개소로 대부분 학교나 회관과 같이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 장소에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던 중 시내에 산재한 사찰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토시 불교회와 협조를 받아 임시피난장소로 사용할 사찰들이 지정됐다.

임시피난장소로 지정된 사찰들은 장애인과 고령자, 혹은 시가 지정한 공식 피난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수용하게 된다. 피난시 필요한 구호물자들은 시에서 준비, 각 지정사찰에서 보관한다. 시 측은 수용될 계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인 것에 대비 우선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들의 감염방지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토시 불교회장 나카시마 에이카이 스님은 "자비와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지정된 사찰들에 대한 불교회 측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천년고찰서 만나는 청량한 풍경소리

日코묘지, 8월 29일 '풍경축제'
2000개 풍경으로 경내 채워

장마가 마무리되고 늦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 한 사찰에서 2천여 개의 풍경소리로 청량감을 더하는 '풍경축제'가 열려 화제다. 8월 29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 'NHK 뉴스' 등은 시원한 축제의 모습을 특별 보도했다.

효고(兵庫)현 사요(佐用)군에 소재한 사찰 코묘지(光明寺). 8세기초 백제계 고승이었던 쿄키(行基)스님이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지역에선 건강과 장수의 영험이 높은 절로 유명하다. 이 코묘지의 주지인 이노우에 류케이 스님의 발안으로 시작한 '풍경축제'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경내를 장엄하는 유리풍경들. 사진출처=키스프레스

류케이 스님은 "고찰이다 보니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 외에 발걸음을 어려워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모두가 산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시작했다"며 축제의 계기를 전했다. 스님은 일본에서 풍경은 여름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과 백중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는 것에서 착안해 풍경축제를 시작하게 됐다.

본당을 비롯한 사찰 내 전각의 처마와, 특별히 설치된 거치대 등에 걸린 풍경들은 약 1,500여개. 유리로 만들어진 풍경들엔 불교를 상징하는 일러스트나 게송, 메시지 등이 쓰여졌다. 코묘지측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메시지를 많이 담았다"고 전했다. 또 코묘지는 참배자들이 자신의 소원이나 감상을 담은 풍경을 달 수 있도록 공양용 풍경도 마련했다. 대부분의 풍경에는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기원이 담겼다. 축제가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500여개의 풍경이 공양 올려졌다.

풍경을 보기 일부러 다른 도시에서 왔다는 한 60대 여성은 "풍경소리는 예로부터 좋지 않은 기운을 떨쳐낸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풍경이 한 번에 울리는 만큼 빨리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자신이 매단 풍경을 가리켰다.

매년 7월부터 9월 중순에 걸쳐 열리는 풍경축제는 몇 년 전부터 SNS 등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규모와 참배객이 늘고 있다. 류케이 스님은 "축제기간 동안 24시간 산문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예년에는 야간 라이트업도 함께 진행했으나, 올해는 혼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중지됐다. 스님은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서 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010-5264-3906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라이벌’ 도교, 불교와 통섭하다



이상근의
聖寶流轉

⑰ 사찰로 온 신선들



마곡사 대광보전 벽화 부분. 도교의 팔선(八仙)을 그린 벽화다. 왼쪽 지팡이를 짚고 있는 신선이 이철괴, 중앙에 두꺼비와 놀고 있는 신선이 해섬자다. 오른쪽 역시 팔선 중 한 명으로 추정되나 누군지는 불분명하다.

중국 도교의 불교 탄압

중국 역사에는 ‘3무1종(三武一宗)’으로 회자되는 사건이 있다. 네 차례의 대표적인 불교 탄압, 즉 ‘법난(法難)’을 가리킨다. 그 규모와 후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불교사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다. 그런데 3무1종 중 가장 폐해가 컸던 세 번의 법난에는 모두 도교 혹은 도사(道士)들이 연루되었다.

3무1종은 모두 왕의 이름을 딴 것이다. 북위(北魏)의 태무제(재위 423~452), 북주(北周)의 무제(재위 560~578), 당(唐)의 무종(재위 840~846) 등 무(武)자가 들어가는 세 명의 왕과 당나라 이후의 오대시대(五代時代)에 있었던 후주(後周)의 세종(재위 954~959) 시대를 가리킨다.

북위의 태무제는 한때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지만 스승이었던 최호(崔浩) 그리고 도사(道士) 구겸지의 권유로 도교로 개종한다. 당시 기록에는 북위에는 불교 사찰이 약 3만 개, 승려가 약 300만 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태무제의 도교 신봉 정책에 따라서 50세 이하 출가자는 모두 환속해야 했고 사찰은 몇몇을 남기고는 모두 파괴됐다. 중국 역사에 기록된 도교의 첫 번째 불교 탄압이다.

북주의 무주에 의한 법난은 유교를 신봉한 무주의 정책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법난의 초창기 주동자는 도교 도사인 장빈(張賓)이었다. 하지만 장빈 역시 제발에 걸려 넘어졌다. 불교를 ‘정리’하자 그 다음에는 ‘도교’가 타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당 무종 때 폐불은 흔히 ‘회창폐불’이라 불리는데 어느 때보다 피해가 컸다. 여기에도 배후에는 도사가 있었다.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던 도사 조귀진(趙歸眞)이 도교 신앙이 두터운 무종을 끌어들여 폐불을 사주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주의 세종 때 폐불은 앞의 세 번의 법난과 비교하면 미미했다. 당나라 이후 법제로 정해져 있던 불교관리 정책을 재확인하고 철저히 시행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었다. 도사(道士)의 개입도 없었다.

법난의 역사는 불교가 거쳐 간 어느 지역에서도 있었던 역사다. 인도에서도 수차례 있었고 중국, 티베트, 스리랑카 등 불교가 발 딛은 여러 나라에서 반복됐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도교VS불교 그리고 ‘신화’ 조작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중국에서 불교가 주로 경쟁하던 종교는 다름 아닌 도교였다. 도교는 유교와 함께 중국에서 자생한 토착 종교였다. 유교를 종교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일어나 세계로 퍼진 종교는 도교가 유일하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에서 도교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다. △고대부터 중국인들이 믿었던 애니미즘에서 파생된 여러 종류의 민간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여러 ‘인물’들이 신선으로 등장시켰다. 프로 스포츠의 ‘올스타전’을 방불케 한다. 물론 불교식으로 말하면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하튼 자생종교인 도교와 외래 종교인 불교가 경쟁을 하는 형국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 ‘양측’에서 만들어낸 전설과 신화가 켜켜이 쌓였다. 대표적인 게 도교 측에서 만들어낸 ‘노자화호설(老子化胡說)’과 불교 측에서 만들어낸 ‘비법분경(非法焚經)’이다.

노자화호설은 노자가 오랑캐(胡)들의 나라인 인도로 건너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오랑캐들을 위해 법을 펼쳤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도교와 불교가 근원이 같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불교를 억압할 목적으로 도교 측에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불교 측에서 만들어냈던 ‘비법분경’ 역시 흥미롭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자 도사들이 나섰다. 어떤 기록에는 불교가 전래된 지 4년 후쯤인 후한 명제 때 얘기라고 한다. 5악(五嶽, 태산 · 화산 · 항상 · 형상 · 순산)의 도사들이 주축이 되어 황제에게 불교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청한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기에는 자신들도 군색했는지 ‘대결’을 제시한다.

도교와 불교의 성물을 제단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타지 않는 쪽이 승리한 것으로 하자는 내기였다. 결국 황제의 윤허로 보름에 맞춰 불교가 전래되었던 백마사 남문 앞에 단이 쌓인다. 도교의 단에는 신상과 경전이, 불교의 단에는 불상과 경전 그리고 사리가 올라갔다.

도교 측에서는 북두칠성에게 제사하는 의식을 통해 불을 억제하기를 기원하며 불을 붙였으나, 타오르는 불길을 막을 수 없어 경전이 검게 탔다. 그러나 불교 단에서는 사리가 방광을 하면서 불기운을 눌러 경전이 노랗게 변색돼 타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껏 전통적으로 도교의 경전이 검은색인 이유 그리고 불교의 경전이 누런색인 이유다. 물론 ‘기록’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런 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다.

불교, 中자생종교 도교와 경쟁
‘노자화호 · 비법분경’ 마찰산물

宋代서 佛 · 儒 · 道 교류 시작
서로 흠모하며 숭배 대상 교체
19세기 韓사찰 벽화에 등장도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싸움은 13세기경까지 계속된다. 대략 송나라 시기 때다. 하지만 이때 이후로 불교와 도교는 급격히 가까워진다. 사실 이때는 불교와 도교뿐 아니라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와 유교까지 적극적으로 사상 혼합이 일어났던 때라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도교는 선종과 성리학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고, 송대 신유학은 불교가 다루던 마음의 문제와 심성론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불교도 적극적이었다. 송대 장상영이 쓴 〈호법론〉이 상징적이다. 유 · 불 · 도 삼교 합일을 토대로 불교를 변호한 것이다.

도교와 불교의 ‘베끼기’

물론 송대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도교와 불교가 서로 흠모하고 숭배하는 대상을 교체한 예를 한 가지씩 살펴보자.

도교에서 숭상하는 주요 신 혹은 신선 목록에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 여럿 있다. 아미타불, 미륵불, 정광불,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달마조사 등이다.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도 있다. 물론 도교의 주요 신인 옥황상제나 삼관대제보다는 한참 격이 떨어진다.

흥미로운 건 도교의 신들은 대개 탄생한 날과 죽은 날을 표기하는데 각각의 부처님들에도 탄생일을 표기했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일은 당연히 4월 8일이다. 그런데 도교의 주장에 따르면 아미타불은 11월 17일 생, 미륵불은 1월 1일 생, 정광불은 1월 5일 생, 관음보살은 2월 28일 생이다.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아마 남겨진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물론 중국에서의 이야기다. 관우는 도교에서 무신이자 재물신으로 추앙받는다.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청나라에는 관제묘(관우의 사당)가 없는 마을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관우는 불교에서도 모셨는데 그 이름이 관제보살이다.

물론 아무런 불교적 기반이 없었던 건 아니다. 〈삼국지〉에서 관우는 사후에도 원한을 잊지 못하고 애마인 적토마를 타고 다니며 자신의 머리를 돌려달라고 나타났는데 옥천산에 나타났을 때 보정 대사로부터 “그렇다면 네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절로 들어온 경우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존재가 희미하지만 중국에서 특히 추앙되는 ‘관음’이 있다. 바로 ‘송자관음(送子觀音)’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신할미’ 정도 되는, 아이를 점지해 주는 관음이다. 그런데 그 원류를 좇다 보면 송자관음은 중국 도교의 신선인 ‘송자낭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불교와 도교는 서로의 보살과 신선을 필요할 때마다 맞트레이드하며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찰로 온 도교의 신선

한반도에서도 도교의 뿌리는 깊다. 고구려 때는 국교의 지위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우리 고유의 신선사상과 결합해 꽃을 피운다. 물론 유자(儒者)들은 드러내 놓고 반대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신선 이야기와 그림은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넘쳐난 이야기와 그림이 사찰에 출현하기 시작한다. 대개 19세기를 전후한 무렵이다. 대개 사찰 건물 벽체는 100년의 기간을 두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벽화도 대개 새로 그리게 된다. 이때 물고기나 포도 같은 그림들과 함께 곳곳에 도교의 신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물고기나 포도는 다산이나 부귀를 상징하는 그림들이니 민중의 염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도교의 신선들이 왜 사찰 벽화에 등장하게 됐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하튼 조선 후기 불전으로 유명한 마곡사 대광보전 내부에는 도교의 팔선 중 이철괴, 유해섬 등의 모습이 남아 있다. 논산 쌍계사에는 서왕모의 모습이 남아 있다. 이밖에 몇몇 사찰은 조선 후기 그려진 도교의 신선들이 벽화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 그리고 절에 무시로 출입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벽화에 그려진 신선을 ‘불교 인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도 워낙 다양한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신중이 있으니 그냥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의외로 사찰에 사는 신선들은 꽤 많은 편이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출재가 설법 스피치 '포교 두 날개'



이현정의
불교와 스피치

② 불교공감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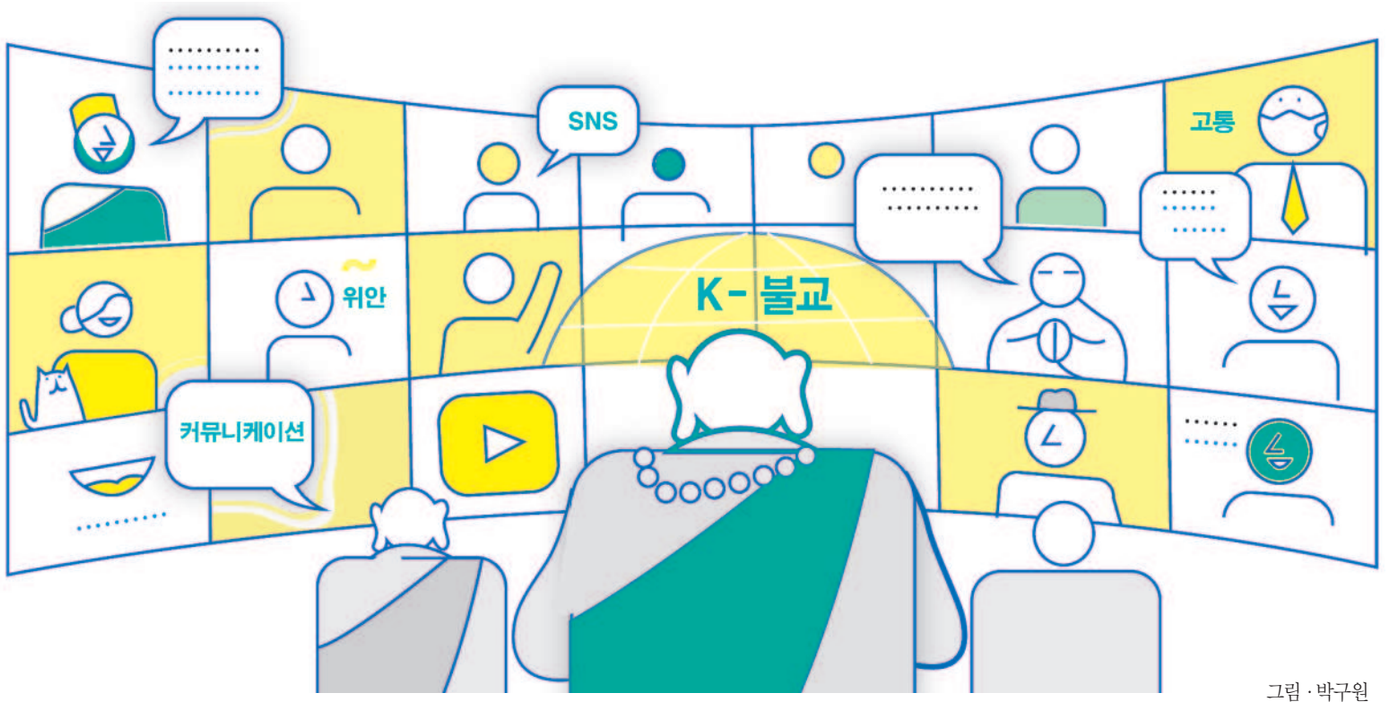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21세기의 초반에 세계는 많은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이미 시작된 글로벌 세상, 인터넷과 IT의 발달로 국경이 없어지고, 서로 온라인으로 넘나들고 있다. 전염병도 국경 없이 글로벌화되어 전 세계가 같이 겪어야 한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다종교시대에서 저마다 자기종교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이때 시대적 전환점의 경계선에서, 불교포교의 한 차원 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SNS로 빠르게 전할 수 있는 불법을 위한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새 시스템을 구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두 축인 말과 글은 SNS의 핵심이다. 불교커뮤니케이션으로 수행자의 설법스피치와 재가불자의 포교스피치를 함께 세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희망해본다.

21세기는 현실의 나와 온라인상의 나, 즉 아바타로서 누가 먼저일지도 모르게 혼합되어 살아가게 된다. 사회적 연결과 자아와 타아의 욕구가 새롭게 드러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된 세상이다. 그 이전, 서구자본주의의 한계점에 도출되어 사상과 정신의 빈곤을, 동양의 사상과 철학, 정신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흐름이 있어왔다. 서구인들은 동양의 그 무언가를 파헤쳐 가져가 자기네 것으로 재빨리 재포장하여 시장에 내놓고 있다. '원조는 우리인데…'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마케팅과 홍보, 광고, 현실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서양종교 즉 일국(一國)적 근대화기획으로 채색된 종교에 끼어 맞추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품의 재탄생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에서의 불교적 소통과 연대적 실제상들이 파편화되어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활용하지 못하면 쓸모 없어지고, 남이 가져간다. 구슬도 꿰야 빛이 나는 법이다. 불교를 옛날사람들이나 고집하는 종교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보여져도 안 된다. 서양인들이 불교의 오롯한 정신을 가져다 그들 문화에 끼워 맞춰 학문의 포장으로 다시 우리에게 수출하듯이, 그들의 비열한 심보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는 적극적인 개발과 변화, 능동적 발전모색과 열린 마음 등이 있었는지 먼저 봐야 할 일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시대에 맞는 언어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커다란 문명변화의 초입에서 불교를 인류 문명의 선두로 맞이해야함은 우리의 몫이며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첫 번째, 출가수행자의 설법스피치는 시대에 맞고, 세대에 알맞은, 그리고 지역, 체제, 상황, 분위기 등 다각도의 대상층을 위한 맞춤형 설법으로 그들과 공유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 지역 등 모든 것을 초월해 존재하는 진리이다. 특히 젊은 층을 향한 스피치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며 설득, 위로, 감동, 감성적 표현으로 함께 해야 한다. 현대의 엄청난 시대적 사회변동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적합한 소재와 스토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승려보수교육으로 설법스피치 교육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승단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사회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다. 실용학문으로서의 부처님말씀을 사회에서 움직이게 하고, 우리말의 혼탁한 비어와 속어, 욕설, 비방, 폭언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부처님말씀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와 말의 진실 된 관계를 꽃피워 글로벌포교를 위한 연구와 준비, 실행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명상, 요가, 선, 사찰음식 등을 통한 불교사상과 동양철학 등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명상이나 선, 사찰음식 등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맹이만 가져갈 뿐, 불교라는 껍데기는 벗어던지고 가버린다. 이러한 기회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를 향한 올바른 표현과 스피치로 불교를 알릴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 못 차리게 빨리 앞당겨진 비대면 교육, 화상교육은 스님들 역시 맞닥뜨려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와버렸다.

화상 스피치교육에 있어, 화면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어색함, 쑥쓰러움을 먼저 만나게 된다. 따라서 화상에서의 나 자신과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만남, 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때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시도하고, 유튜브를 통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펼쳐 포교를 위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누구든지 화면을 통한 나의 모습과 목소리에 힘들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색한 첫 만남을 통해 닦아나가고, 훈련하고, 더 좋은 모습과 음성으로 보시한다는 마음을 펼쳐야 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 (Peter Druker,1909 ~ 2005)는 이미 2000년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변해야하는지에 대해 말한 바 있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궁금증을 대신하여 물은 질문 '21세기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는 서슴지 않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표현 능력이며,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일갈하였다. 이젠 종교도 경영, 관리, 서비스, 사람관계, 커뮤니케이션과 직결되어 그 중요성을 직시해나가야 한다. 자기표현능력은 거의 전부를 덮을 정도의 중요도를 발휘하고 있다. 불교를 알리고, 불교내용을 알리고, 불교적 삶을 전해, 부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안내해야 한다. 모두가 힘들고 두려움 속에서 정신이 메말라가고, 피폐해가기 쉬운 요즘에 부처님말씀을 전하는 한마디를 통해 천지가 개벽하고 마음의 불꽃을 피우는 설법이란 그 중요성이 무한대라고 본다. 설법스피치훈련으로 안과 밖을 닦고 개발해나가는 모습도 부처님을 향한 사랑 그 자체이며 중생구제를 위한 방편, 노력, 행동, 보시 그 모든 것일 수 있다.

> **온 · 오프라인 혼합 세계**
> **맞춤형 설법으로 공유를**
> **젊은층의 접근도 필요해**
>
> **법문, 교리공부한 지식**
> **타인 전할 용기 역량도**
> **실제 배양의 기회 제공**

두 번째 재가불자의 포교스피치는 스님의 설법스피치를 협조하는 스피치로 시작하면 거의 부담이 없을 것이다. 저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거기서 그치고 마는 것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요즘엔 각 사찰마다 크고 작은 불교대학들이 있어, 배움의 장이 넓어져 희망적이다. 그러나 어찌보면 각각에게 하나의 아상을 키우는 격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하고 되돌아봐야만 한다. 끊임없이 머리로만 부처님말씀이라는 지식과 이론을 채워나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워서 남 줘야 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나 배워서 듣고 순간 환희심이 난다해도 그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가 배우고 익힌 부처님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내가 배운 것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전하기 위해 말을 한다' 는 것은 배움 그 너머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행동이다. 따라서 재가불자는 배운 것을, 아는 것을, 들은 것을 한마디라도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단, '내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지식을 자랑하거나, 남과 대결하려는 마음이라면, 아니 배운 만도 못하다.

배움을 무기로 삼아, '저 스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 저 사람이 한 말이 옳지 않다' 는 식의 자기알음알이에 대한 고집과 상이 만들어지면 그것 또한 옳지 않은 방법이다. 재가불자는 자기가 들은 스님의 법문 중 한 글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용기, 그 신선한 용기를 갖자는 것이 포교스피치의 핵심이다. 따라서 재가불자의 스피치교육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사찰 + 그 사찰의 스님법문 + 스님법문 중의 가슴에 와 닿는 한마디' 만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 신심이 기초가 되는 자신감' 이 가장 중요하다. 무수한 경전의 내용과 풀이, 많은 곳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의 머리를 꽉 채워, 이것이 독성이 된다면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자도 자기 자신과의 진솔한 만남을 위한 순간 즉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 솔직한 나와의 만남, 거기서 나오는 대화를 가져야 한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바로 공덕이고 기도이며 복밭을 가꾸는 일이다.

각자의 본분에 맞게 출가 수행자와 재가불자의 각각의 스피치는 윈윈의 힘으로 포교진작의 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불교스피치는 교육과 훈련으로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추며, 방송과 언론을 통한 포교활동에 더욱 진취적인 효과를 낸다. 불교취약계층과 적극적인 만남(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소통의 문을 열어)을 형성하여 보다 사회구제에 적극성을 띨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사각지대를 위한 포용성과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위안과 안심을 펼치는 사회구제행동으로 넓혀나간다. 이는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 핵심이랄 수 있는 다종교시대에서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현대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종교로 우뚝 서게 한다. 이 모든 포교행위는 이고득락離苦得樂, 중생요익衆生饒益이고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활동성을 뿜어내는 일이다. 입을 열면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행동력으로 진취성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

이는 '공감뉴런 Empathy Neurons' 이론에 기초해 앞으로는 인간은 서로 공감유대를 지향하여 이타적 존재가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국제적 관계에서도 자기만을 생각할 수 없는, 자기만 생각해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임을 경험하고 있다. 타자와 공감하는 '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 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 에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는 종교성이 우선으로 서야 하며, 그 중에서도 살상과 유혈이 낭자한 종교적 패러독스 속에서 불교만이 평화와 자비,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로서 우뚝 서야 한다. 불교적 해법을 만 천하에 알리고 이에 참여하는 포교와 전법행을 불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와 교육, 실행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바퀴는 굴러가라고 만들어 진 것이며, 굴러가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법, 진리를 수레바퀴로 상징화하는 이유는 굴러가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불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이 곧 전법이며 포교이며 가장 큰 보시이자 기도수행이다.

〈불교스피치 전문가〉

(재)대한불교진흥원
2020년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 불교 신행(수행) · 학술 · 문화 · 복지 · 포교 · 미디어 활동 등

접수 : 2020. 9. 28 ~ 10. 12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불교 기관 · 단체(등록 및 미등록 단체 · 모임 포함)

2. 지원 분야
① 불교 신행(수행) 실천
② 불교 학술 세미나 및 학술지 발간
③ 불교 문화 행사
④ 불교 복지 활동
⑤ 불교 포교 활동(어린이/청소년/청년 활동, 군법당 후원, 국제 교류 활동 등)
⑥ 불교 미디어 활동
⑦ 기타

3. 지원 규모
지원 한도 : 1개 기관 · 단체별 100만원 ~500만원

4. 신청 자격
설립 후 활동 연혁 1년 이상으로, 회원 10명 이상의 불교 기관 · 단체를 원칙으로 함.
※ 신청 시 참고사항
- 1개 기관 · 단체당 연간 1건만 지원 가능함.
- 기관 · 단체의 운영비나 경상비, 통상적 업무비 지원은 제외함.
- 사업(행사) 취소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신청 시 제출된 자료가 허위일 경우, 향후 최대 5년간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됨.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 본원 홈페이지(www.kbpf.org, 공지 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양식에 맞춰 내용 작성 후 관련 첨부 서류와 함께 출력하여 사무국으로 우편 제출하여야 함.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지원 계획서 1부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심사 절차 : 1차 심사 → 2차 심사 → 선정 및 통보(E-mail)

6. 신청 접수 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 10월 12일(월) ※ 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함.

7. 접수처 및 문의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Tel : 02-719-2606, E-mail : kbpf2606@daum.net

(재)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화엄사상 바탕으로 한 조동종 선법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⑰ 조동종의 기본선법



그림 · 강병호

조동종도 역시 선종의 5가 종파 가운데에 하나이며, 동산 양개(洞山 良價, 807~869)와 제자인 조산 본적(曹山 本寂, 840~901)이 창시했다. 조동종의 도량은 강서성 구강시(九江市) 영수현(永修縣) 운거산(雲居山)의 진여선사(眞如禪寺)이다. 조동종은 8~9세기에 번성을 누렸고, 10~11세기 상반기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11세기 중엽부터 13세기에는 중흥을 하였고 13세기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비록 운문종이 오대에 발흥해 남송 초부터 쇠락하기 시작해서 원대에는 이미 법맥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래도 조동종은 임제종과 함께 '임제천하 조동반' 이라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근대까지도 간헐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조동종의 법맥은 혜능→청원 행사→석두 희천→약산 유엄→운암 담성(雲岩 曇晟)→동산 양개→조산 본적으로 이어진다.

남종선은 당나라 후기로 접어들면서 전국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고 선종의 주류가 되었다. 당말 오대에 이르러서 선종의 오가 종파가 형성되었다. 이 가운데서 유전된 시간이 가장 길고 비교적 오래도록 영향을 준 종파는 임제종과 조동종으로, 송대 이후 양대 선맥으로 쌍벽을 이루었다. 임제종이 제시했던 선법으로 '사료간(四料簡, 揀)', '삼구(三句)', '삼현삼요(三玄三要)' 등을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 방편은 일상생활에서 '행주좌와어묵동정' 을 일깨워주는 방식에 치중되어 있으며 비교적 활발하고 생동감이 넘친다고 한다. 반면에 조동종은 '오위설(五位說)' 을 제시해서 '편정회호(偏正回互)' 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동종의 시설 방편은 '행해상응(行解相應, 행과 아는 것이 상응하는 것, 지행합일)', 정경세작(精耕細作, 정성스럽고 꼼꼼하다)하며,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고(穩健), 주도 면밀(綿密)할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변증 정신을 갖추었고 게다가 선종 및 유교 도교사상을 흡수해서 체현했다.

임제종과 조동종 모두 이사(理事)관계의 동이(同異)를 가지고 종풍(宗風)을 드러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두 파의 사상은 다르다. 작고한 중국불교 학자인 여징(呂澂)선생은 남악 회향 일파인 임제종의 선법 특색은 '촉목시도(觸目是道)' 를 발휘한 사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청원 행사 계통의 조동종 일파는 '직사이진(即事而真)' 을 발휘했지만, '즉사이진(即事而真)' 을 바탕으로 '편정회호(偏正回互)' 를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조동종의 오위설은 바로 '편정회호' 라고 할 수 있으며, 임제종과 구별할 수 있는 조동종만의 독특한 가풍이라고 할 수 있다. 조동종 오위설의 근원인 '회호(回互)' 는 곧 화엄사상인 이사원융(理事圓融)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석두 희천(700~790)과 맞닿아 있는데, 이유는 회호와 불회호(不回互)의 개념은 석두 희천이 지은 〈참동계(參同契)〉로부터 연유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종에서 홍주종과 석두종 역시 쌍벽을 이루었다

오위설은 조동종 선법의 이론이다. 동산 양개와 조산 본적이 기초를 다져서 수립했다. 남송의 혜홍 각범(惠洪 覺範)이 지은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 지조(智昭)가 지은 〈인천안목(人天眼目)〉, 청대의 성총(性統)이 편찬한 〈오가종지찬요(五家宗旨纂要)〉와 일본 조동종이 편찬한 동산 양개와 조산 본적의 어록들은 모두 오위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전하는 바로는 동산 양개는 스스로 자성을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혜능이 주장하는 돈오법문은 일반인에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오위(五位)설을 시설했다고 한다. 그는 각기 근기가 다른 학인들을 상 · 중 · 하로 나누어서 응대했으며, 후에 그의 제자인 조산 본적은 오위설을 더욱 발전시켜서 그만의 독특하면서 면밀하고 완성된 조동오위설(曹洞五位說)을 수립했다.

이른바 조동오위는 정편(正偏) · 공훈(功勳) · 군신(君臣) · 왕자(王子) 등 4종이 있다. 이 가운데서 정편오위(正偏五位) · 공훈오위(功勳五位)는 모두 동산 양개가 창조한 것이다. 군신오위(君臣五位) · 왕자오위(王子五位)는 조산 본적이 창시한 것이다. 오위(五位)설의 근본적 사상 종지는 조동종이 표방하는 진여(理)와 현상세계(事)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시설한 방편 교설이다. 조동종은 삼라만상인 만물과 만물 간에는 일종의 회호와 불회호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회호(回互)는 만물 간에 서로 융화하고 관통한다는 것이다. 비록 만물 간에 각기 다른 형상이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각각의 사물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상즉상입(相卽相入)한다는 것으로, 회호와 불회호의 관계는 곧 본질과 현상의 교섭중첩 및 융합을 가리킨다. 이 논리의 초석은 "이 가운데 저것이 있고(此中有彼), 저것 가운데 이것이 있다(彼中有此)"는 명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초기불교 연기론의 기본정석과 같은 논리이다. 즉 회호는 서로가 서로를 교섭하기 때문에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불회호는 만물은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어서, 서로 사물 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회호, 불회호는 사물의 특수성 보편성을 말해서 사물 간의 원융무애를 주장한 것이다. 즉 사물 간에 보편성 특수성의 관계 · 존재 · 발전 및 변화의 관점을 총망라한 것으로, 이점은 일종의 이사(理事)관계를 나타내는 사변적이고 변증법적인 논리로서 화엄사상의 핵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측면은 별개의 문제이다. 때문에 조동종은 선종의 모든 종파 중에서도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색채가 매우 농후한 종파라고 하며, 송대 이학의 철학적 사유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조동종 선법-오위설 · 편정회호
초기불교 연기론과 같은 논리로
철학적 사변적 색채에 강한 종파

정편오위(正偏五位)는, 곧 ①정중편(正中偏) · ②편중전(偏中正) · ③정중래(正中來) · ④편중지(偏中至) · ⑤겸중도(兼中到)를 가리킨다. 이 중에서 정(正)은 곧 체(體) · 공(空) · 이(理) · 심성(心性) · 절대(絕對) 등으로 능(能)이고, 편(偏)은 용(用) · 색(色) · 사(事) · 상대(相對) 등으로 소(所)를 말한다. 곧 事理가 서로서로 배합하고, 또한 편정(偏正)이 회호를 한다는 것이다. 이 오위설의 구별법은 법의 덕용자재(德用自在)를 현시한 것으로서 깨달음의 경계를 다섯 단계로 고려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다. 공훈오위(功勳五位)는 향(向) · 봉(奉) · 공(功) · 공공(共功) · 공공(功功) 등을 가리킨다. ①향(向)은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②봉(奉)은 수행을 통해서 불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③공(功)은 불성을 보는 것이고, ④공공(共功)은 비록 이미 각위(覺位)에 도달했지만 오히려 중생을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고, ⑤공공(功功)은 더욱더 전의 단계를 초월해서, 자유자재한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동산 양개가 수립한 것이다.

군신오위(君臣五位)는, 곧 군(君) · 신(臣) · 군향신(臣向君) · 군시신(君視臣) · 군신도합(君臣道合) 등이다. 즉 君→정위(正位), 臣→편위, 신향군→편정오위의 편중정, 군시천→편정오위의 →정중편, 군신도합→편정오위중의 편정겸이다. 이 5개의 관계 혹은 단계는 불교사상을 각기 다른 측면 혹은 각기 다른 경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①君의 덕(德)은 지존(至尊)으로 중생의 근기를 초월한 것을 나타내며, 만물은 본래 공하며 본래무일물 무자성이며 모든 분별과 차별 단계를 초월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정위(正位)이다. ②신(臣)은 곧 군(君)의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 군의 성도(聖道)를 선양하는 것이다. 삼라만상의 개체인 제법현상에 대한 다양성 등을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편위이다. 군(君)은 보편적인 원칙을 가리키며, 신(臣)은 구체적인 원칙을 가리킨다. ③신향군(臣向君)은 곧 신(臣)은 진실하게 군(君)을 섬기는 것으로, 일체 계급의 차별을 한다. 이것이 바로 편중정이다. 일체차별의 현상[事相]의 편위(偏位)는 모두 무차별의 평등계의 정위(正位)로 돌아간다. 이것이 사(事)를 버리고 이(理)에 들어가는 것이다. ④군시신(君視臣)은 곧 군(君)은 공평하고 사심이 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하여 하며(一視同仁) 오직 신(臣)의 재능을 보고 임용해야 한다. 각기 적성에 맞는 곳에 배치되어야(各得其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평등을 초월한 법성(法性)의 정위(正位)를 비유했으며, 차별을 없앤 사상(事象, 각자 사물의 형상) 편위중(偏位中)에 들어가서 각각의 사상(事象)의 차별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곧 이(理)를 등지고 사(事)에 합하는 것으로 정중편(正中偏)을 가리킨다. ⑤군신도합(君臣道合)은 곧 군신이 하나가 되어서 군신 간에 서로 잘 배합해서(相得益彰, 두 사람의 능력과 작용을 잘 나타낸다), 혼연원융해서 자유자재해야 천하가 태평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보편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원칙이 통합한 것으로, 구체적이면서 보편적 원칙을 이룬 것으로, 구체적인 것 가운데 보편이 적용되었으며, 보편적인 가운데 구체적인 것이 적용된 것이다. 즉 구체(具體)에 즉한 보편(普遍)이며, 보편에 즉한 구체로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혼용으로, 전체와 부분의 혼용 등으로, 즉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 색공상융(色空相融), 사리불이(事理不二)의 경계이다. 이것이 바로 변정겸대(偏正兼帶, 변정을 겸했다)이다.

왕자오위(王子五位)는 곧 탄생(誕生) · 조생(朝生) · 말생(末生) · 화생(化生) · 내생(內生) 등이다. ①탄생왕자는 "심(心)을 본래 불(佛) · 성(性) · 이(理)에 비유한 것으로, 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졌기(不假修證, 本自圓成) 때문에 내소(內紹) · 적생(嫡生)이라고 칭한다." 즉 왕위를 계승할 태자라는 것이다. ②조생왕자는 "수행인을 비유한 것으로, 본래 존귀한 것은 아니지만 유수유증(有修有證)을 통해서 본래 존귀한 데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즉 재상에 비교할 수 있으며 외소재상(外紹宰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제왕의 차자에 비교한다." ③미생왕자는, "수행하는 과정을 비유한 것으로, 유수유증도 있고, 진에 들어가되 진에 물들지 않고(入塵而不染塵), 해탈지(解脫智)를 얻는 자를 또한 조생 중에 서생(庶生)이라고 한다. 군신위(君臣位)에 비교가 된다." ④화생왕자는,"수행인이 만연(萬緣)을 다한 것에 비유한 것으로, 자기의 공업(功業)을 이루고 널리 비지(悲智)를 운용하기 위해서 입진(入廛, 중생 속으로 돌아오다)하는 것이다. 즉 차위공명(借位明功)으로 장군위에 비교한다." ⑤내생왕자는, "수행인이 자성을 오도해서 최고의 경계에 도달한 것에 비유한 것으로, 자기를 이미 교화해 마치고 본체에 회귀한 상태이다. 탄생과 동체로서 비록 아직은 어리지만 언젠가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으므로 또한 소위(紹位) 내소(內紹)라고 이름한다." 위의 두 가지는 조산본적이 수립했다.

〈동국대 강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한국 '아홉수'도 미얀마선 행운의 '9'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⑰ 미얀마의 미신

어느덧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미신은 나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밤에는 절대 손톱과 발톱을 깎지 않고, 문지방에는 되도록이면 앉지 않는다. 시험 보는 날이면 미역국을 먹고 미끄러워질까 두려워 미역도 쳐다보지 않았다.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척척 잘 붙는다는 엿과 찹쌀떡을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학창시절도 있었다. 숫자 '4'는 불길하다는 이유로 핸드폰 번호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과학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이지만, 비과학적인 미신은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 미신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알아 두면 그 나라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9'가 들어가는 나이에는 "아홉수 조심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종종 '아홉수'에 걸려 인생이 풍지박살난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자인 나도 모르게 아홉수를 조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9'는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숫자이다.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숫자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동차 번호, 핸드폰 번호가 '9999'이거나 번호를 합쳐서 '9'가 되도록 노력한다. 미얀마에서 숫자 '9'는 "무슨 일이든 성공을 가져다 주며, 영원한 행운의 신호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얀마에서 숫자 '9'는 단순히 '럭키 세븐'의 의미를 넘어선다. 미얀마 군부독재 시절 독재자 네윈은 '45짯'과 '90짯' 지폐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숫자 9와 관련된 지폐를 발행하면 자신의 집권기간이 연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아기에게 평생에 걸쳐 복이 오길 바라며 이름 음절의 총합이 숫자 '9'가 되도록 맞춘다. 불교 수행에 있어서도 숫자 '9'는 예외가 아니다. '꼬나윙(koe na win)' 염불 수행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꼬'는 숫자 9를 의미한다. 1단계에 9일씩인데 총 9단계가 있다. 1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어야 하며, 81일 동안 단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된다.

행운을 중요시 여기는 미얀마 사람들

약 2년동안 유학하면서 느낀 점은 미얀마 사람들은 '운'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이다. 타인에게 "운이 좋아지길 바라요"라며 덕담을 해주기도 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말과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갖는 것이다. 미얀마에는 '운'과 관련된 생활 미신이 몇 가지 있다.



미얀마 전통의상 론지를 입은 여성. 미얀마 여성들은 '수요일에 머리를 감으면 운이 나빠진다'고 믿는다.



꼬나윙 염불표.

함께 사는 미얀마 언니들은 매일 머리를 감는 나를 신기하게 여겼다. 특히 수요일날 머리 감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얀마에서는 '수요일날 머리를 감으면 운이 나빠진다'는 미신이 있었다. 매일 머리를 감는 나에게 박사과정 동기 친구들은 "감기에 걸릴 까봐 걱정이다. 라온, 수요일날은 운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날만은 감고 오지마!"라는 걱정의 말을 2년 내내 언니들과 같이 해줬다.

미얀마 여자라면 머리에 꽃을 꽂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시험을 보는 날은 '운'을 위해 꽂아선 안될 꽃이 있다. 바로 쟈스민 꽃이다. 쟈스민 꽃은 미얀마어로 발음이 '싸빼'인데, '싸'는 '공부'라는 뜻이며 '빼'는 '빼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공부한 것이 모두 빠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보는 날 미얀마 여자들은 쟈스민 꽃을 머리에 꽂지 않는다.

미얀마 박사과정 동기 친구들과 1년동안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수업시간과 관련해서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 한국과 미얀마 학생들의 공통점은 '수업시간에 선생님 질문 피하기'이다. 산스크리트어 교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교수님이 오기 전 늘 친구들이 본인들의 신발을 뒤집어 놓았다. 6개월 정도 지나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신발을 뒤집어 놓으면 교수님께서 질문을 안 하신다는 것이다. 미신의 효과가 통한 건지 교수님은 6개월동안 나에게만 질문을 했었다.

독재자 네윈, 집권 연장 위해
'45짯 · 90짯' 화폐 발행 지시
시험 앞두면 '쟈스민' 멀리해

수요일엔 머리 감으면 '불운'
빌린 돈 미납은 다음생 영향
미얀마서 대부업 성공 비결



꽃을 꽂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미얀마 남자들은 자신의 운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의 빨래가 걸린 곳 밑을 절대 지나가지 않는다. 정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지만 '론지(미얀마 여자 전통치마)가 걸린 곳으로 남자가 지나가면 남자의 운이 나빠져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미신이 있다. 또한 '월경을 하는 여자와 스킨십을 하면 운이 나빠진다'라는 미신도 있어서 중요한 일을 앞둔 미얀마 남자들은 자신의 부인과 여자친구가 월경을 하면 그 기간만큼은 조심한다는 미신도 들었다. 다른 미신은 이해가 되었지만, 월경을 해서 아픈 날 자신의 남자친구 혹은 남편에게 위로를 받지 못 한다면 너무나 속상할 것 같다.

한국의 미얀마 대출업, 성공 이유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대출업과 관련된 곳이 많다. 미얀마의 경제적인 소득이 낮아서, 돈을 잘 갚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돈을 대출하면 대부분 이자와 원금을 잘 갚는다. "이번 생에 갚지 않으면 그 빚을 다음 생에 업으로 받는다"는 불교적인 가치관과 "남의 돈을 빌려 놓고 안 갚으면 다음생에 그 사람 집에서 소로 태어나서 평생 일해야 한다"는 미신이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미얀마 사람들의 신용도가 좋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급하게 옷을 입느라 거꾸로 입고 밖에 나가던 찰나에 "너! 죽은 사람 되고 싶어? 운 나빠지게! 빨리 갈아입어!"라며 노발대발 화를 내며 얼른 옷을 제대로 입으라는 미얀마 룸메이트 언니의 말에 놀란 적이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예전에 죽은 사람만 거꾸로 옷을 입혔기 때문에 산 사람은 옷을 거꾸로 입으면 운이 나빠진다고 믿는다. 할머니께서 어린시절에 길을 가다가 영구차를 만나면 "영구차를 길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영구차를 보면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반드시 빌어드려라"라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미얀마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미신이 있다. "길거리에서 영구차가 지나갈 때 지갑을 만지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미얀마 사람들은 영구차가 지나가면 자신의 지갑을 쓰다듬어 재물운을 좋게 한다.

한국에서는 한 때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이 유행했었다. 미얀마의 한 지인은 페이스북에 뜨는 한국 먹방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소리내서 음식을 먹어? 미얀마에서는 예의가 없고 운도 나빠져!"라면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각 나라의 예절과 미신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끔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 하고 무심코 한 행동과 선물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큰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미얀마와 관련된 일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숫자 '9'를 행운의 숫자로 삼아 시작해보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또한 미얀마에서 사업할 때는 "청결하지 못 하게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 직원이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운이 나빠진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구나!"라는 마음으로 직원을 이해한다면 서로가 불편할 일이 줄어든다.

미얀마는 "이제는 다 알았다"싶을 때, 모르는 한 가지 부분이 또 생기는 매력적인 나라이다. 아마도 다양한 민족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소한 부분이 더 많아서 일지도 모른다. 이해하는 깊이만큼 독자 여러분께 미얀마의 매력이 온 몸으로 느껴질 것이다.

〈양곤대 박사과정〉

염불이 힘들면 스트레스 누적이 만성피로!
염불이 편하면 수천번의 힐링이 무병장수!

▣ 본사의 염불전문 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낭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는 서울서 김해로 사업체를 옮긴 후 중·저음 사운드 시설로 염불이 편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신흥사, 범어사, 남해의 토굴까지 일천여 시설을 한 베테랑 업체입니다.

▣ 장점 : 앰프다루기 1초! 간결한 제품으로 고장이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 카드가능)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발성법 강사 박 공 희
방문시 스님 발성교정 가능

▣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배워야 지혜가 자라고, 베풀어야 복과 덕이 크다" www.dongsanbud.net

동산불교대학 2020년 하반기 제57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9월 10일(목) 오후 2시 개강 최봉수 교수 근본불교 강의**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사이버 강좌)

과목	반야사상, 부처님 생애, 인도, 중국, 한국불교사, 화엄경, 법화경 등 12개 과목
교수진	법산경일대종사(학장), 최봉수, 이미령, 유동호, 황순일, 김호귀 등 15명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 9월 8일(화) 오후2시 개강 "중국차" 〈김경미 교수〉
● **전통범패의식반** (2년과정) : 9월 9일(수) 오후2시 개강 〈인각스님〉
●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 9월 10일(목) 오전10시30분 개강 〈법인스님〉
● **불교의식반** (2년과정) : 9월 12일(토) 오후2시 개강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 **모집인원** : 100명(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각 30명 내외)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년 8월 ~ 9월 10일
※졸업생은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동산불교대학 동문은 월 회비 1만원(교육불사)으로 불교대학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비교종교론	붓다의 가르침(금강경)
	• 강의 : 9.8(화) ~ 12.22(화) 오후7시(16회) • 강사 : 최종석 교수	• 강의 : 2021.1.5(화) ~ 2.23(화) 오후7시 • 강사 : 최봉수 교수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남의 말에 현혹돼 속지 말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㉞ 정법과 사법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쩌다 노장들의 입속말을 듣고 이것이 참된 도라 여겨 불가사의하다 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라 감히 저 노숙(老宿) 도를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니. 눈먼 바보들이여! 그대들 일생을 이따위 견해를 만들어 멀쩡한 두 눈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느니라. 춥다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꽁꽁 언 얼음 위의 당나귀나 망아지 같구나. 그러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헐뜯을 수 없나니 구업이 생길까 두렵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무릇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감히 부처와 조사를 헐뜯고 천하를 시비하며,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철없는 소아들을 꾸짖고 욕하며, 역순(逆順)의 경계를 향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찾고자 했느니라. 그래서 나는 12년 동안을 될 만한 한 개의 업성(業性)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겨자씨만큼도 얻지를 못했느니라. 만약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 봐 불안해 편하지 못했을 것이니라. 자고로 선배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해 쫓겨나곤 했으나 쫓겨난 뒤에 비로소 귀한 사람인 줄 알게 되었느니라. 만약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무조건 인정해 준다면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한 번 포효하면 여우의 뇌가 찢어진다' 했느니라."

'도가 같아야만 알아볼 수 있다(同道方知)'는 말이 있다.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은 수행이 높은 경지에 이른 이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하수들은 상수의 경지를 모른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수(正手)인지 모르고 잘 속게 된다고 한다.

이 장에서 임제가 하는 말은 공부하는 사람이 남의 말에 현혹되어 속지 말라는 말이다. 내 공부가 빈약하면 남의 말에 도 잘 속고 그릇된 지견을 만들어 사견에 빠지는 수가 많다는 것이다. 임제는 이런 사람들을 눈먼 사람들이라 혹평을 하고 있다. 법을 바로 볼 줄 모르니까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이다.

대혜 종고의 어록인 〈서장(書狀)〉에도 '할안한(瞎眼漢)'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제록〉의 '할루생(瞎屢生)'과 같은 말로 눈먼 사람이라는 말이다. 눈먼 사람이 해를 못 보는 것처럼 정법을 바로 보는 바른 눈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말이다. 대혜는 간화선(看話禪)이라야 옳은 수행법이라 주장하고 묵조선(默照禪)을 비판하면서 묵조사사배(默照邪師輩)의 무리들이 남의 눈을 멀게 한다 하였다. 또 사법(邪法)을 가르치는 사사배(邪師輩)들이 도마죽위(稻麻竹葦) 같다 하였다. 중국 선종사에서 5종으로 나눠진 선종들이 각각 내세우는 종풍(宗風)에 차이가 있어 온 것처럼 종지를 바로 세워 정법 선양을 하는 것도 방편이 달랐다. 궁극의 깨달음을 향하고 견성(見性)을 목적으로 하는 선(禪)이지만 임제는 임제 가풍이 있고 스승 황벽은 황벽 가풍이 있는 것이다. 시대와 곳에 따라 방편상의 응용 실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임제의 시대인 9세기와 대혜의 시대 12세기에도 이와 같은 비판이 있었던 것을 보면 선수행의 세계에도 언제나 정법과 사법의 논란이 끊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임제의 말 가운데 서글픈 독백이라 할 수 있는 말도 나와 있다. 공부인을 찾기 위하여 12년 동안 눈여겨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말이다. 임제가 찾는 공부인은 무엇보다 불조(佛祖)를 능가할 수 있는 기백이 있는 사람이다. 앞 장에서 말한 '곳에 따라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과감히 자기 허울을 벗고 진실한 성품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선가구감〉은 임제의 가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임제의 가풍은 맨손에 단칼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고금의 현요(玄要)를 가리고 용과 뱀을 주인과 손님으로 시험한다. 금강보검을 쥐고 나와 대와 나무에 붙은 정령을 쓸어내고 사자의 위엄을 떨쳐 여우나 이리의 간을 찢는다. 임제종의 가풍을 알려 하는가? 푸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평지에 파도가 일어나느니라."

〈조계종 고시위원장〉

색즉시공 공즉시색



세상 속 경전읽기

㉞ 반야심경

독실한 불자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독송하게 되는 것이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은 한문 번역본도 여러 가지이고 해설서도 많다. 우리가 의식을 행할 때 삼귀의(三歸依) 다음에 봉독하는 것은 당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이다.

〈반야심경〉의 한역(漢譯)들은 크게 약본(略本)과 광본(廣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본이 일반적인 불경의 형식인 6성취[六成就, 곧 신성취(信成就)인 '如是'·문(聞)성취인 '我聞'·시(時)성취인 '一時'·주(主)성취인 '佛'·처(處)성취인 在某處·중(衆)성취인 '與衆若干人俱']의 통서(通序)를 갖추어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약본은 6성취가 생략되고, 바로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또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로 시작되고 있다.

현장 번역본과 구마라집(鳩摩羅什) 번역의 〈마하반야바라밀대명주경(摩訶般若波羅蜜大明呪經)〉은 약본이다. 법월중(法月重) 번역의 〈보편지장반야바라밀다심경(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 그리고 반야(般若)와 이언(利言) 공역본, 지혜륜(智慧輪) 번역본, 법성(法成) 번역본인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들과 시호(施護) 번역의 〈불설성불모반야바라밀다경(佛說聖佛母般若波羅蜜多經)〉은 광역본이다.

〈반야심경〉은 260자의 짧은 경문이지만,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심요(心要) 법문으로, 반야지혜와 신비한 주문을 함께 겸비해서, 현장이 구법을 위해 천축을 가는 험난한 길에서 위기 때마다 지심으로 독송해 악귀들을 물리치고 길이 저절로 열리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다고 한다. 〈반야심경〉 모든 부분이 핵심이지만, 그 중 핵심은 다음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색(色)이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空)이 색(色)과 다르지 않아, 색(色)이 곧 공(空)이요, 공(空)이 곧 색(色)이니, 마음[受想行識]도 또한 그러하니라."

〈般若波羅蜜多心經 T0251_.08.0848c07-c09〉

금타 화상의 약해다.

"색(色)이란 공성(空性)의 여여상(如如相)으로서 색체(色體)가 별유(別有)함이 아니오. 공체(空體)의 환화(幻華)일새 색(色)이 공(空)과 불이(不異)하고 공(空)이 색(色)과 불이(不異)하여 공(空) 그대로 색(色)이오. 색(色) 그대로 공(空)이라 사온(四蘊)도 또한 그러하니"

〈金剛心論 第1編 第1章 般若波羅蜜多心經의 讀解〉

색[色. 곧 물질]은 물질적 장애[質礙]가 있고 변하고 부서지는 것[變壞]이다. 따라서 항상 변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이며, 마음대로 할 수[常一主宰] 없는 공한 성품[空性]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항상 변하지 않는 아체(我體)가 없는 공한 성품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如如相]'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본체[色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풀밭에 누워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공중에 작은 티끌들이 무수히 있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맑은 공중에 티끌꽃이 없는 것처럼, (色은) 공한 바탕[空體]의 헛꽃[幻華]일 뿐이다. 그래서 색(色)과 공(空)이 다르지 않고, 색(色)이 곧 공(空)이며,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니, 오온[五蘊. 물질과 마음] 모두가 곧 공(空)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은 연기(緣起)이기 때문에 그렇고, 연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금타대화상의 〈수묘게(數妙偈)〉 중에 다음 구절을 음미할 일이다.

"인연따라 일어나면 있는 것 같고 인연따라 소멸하면 없는 것 같네! [연기약존연멸약망(緣起若存緣滅若亡)]"

〈金剛心論 第4編 宇宙의 本質과 形量, 卷頭(數妙偈)〉

연기(緣起)하면 색(色)이라 하고, 연멸(緣滅)하면 공(空)이라 하는 것이다. 기멸(起滅)이 둘이 아니니[不二] 색즉시공(色卽是空)이요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닦음의 길 20

염불과 선의 만남

대화(dialogue)란 서로 다른 두 가지(dia) 방식(logos)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기본적으로 통하기가 쉽지 않다. 진보와 보수 간에 소통이 어려운 이유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양식이 만나서 묘하게 소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살펴볼 염불과 선이 그렇다. 염불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서방정토에 낳고자 하는 타력적 신앙이지만, 선(禪)은 치열한 자기 수행을 통해 깨침에 이르는 자력적인 길이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수행체계가 어떻게 갈등이 아니라 멋진 화음을 만들어낸 것일까?

흔히 정토신앙은 말법시대(末法時代)에 유행하는 신앙이라고 일컬어진다. 불교에서는 붓다의 입멸 후를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바른 가르침이 펼쳐지는 정법시대(正法時代)와 정법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게 되는 상법시대(像法時代), 그리고 오탁악세(五濁惡世)의 말법시대가 그것이다. 세상이 오염되고 중생들이 죄를 많이 짓는 말법시대에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존하는 염불수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남북조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정토에 태어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처럼 정토신앙이 대중화되면서 새로운 움직임 또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미타불과 서방정토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성(自性)이라고 인식하였다. 유심정토(唯心淨土) 자성미타(自性彌陀)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아미타불과 서방정토를 내 마음으로 압축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는 곧 '마음이 부처(心卽佛)'라는 선불교의 핵심을 염불의 입장에서 수용한 것이다. 선(禪)에서도 정토와 아미타불이 자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면 이를 받아들이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된다.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보조 지눌이나 태고 보우(太古 普愚, 1301~1382), 서산 휴정(西山 休靜,1520~1604) 등도 이러한 입장에서 선과 염불의 하모니를 연출하였다.

그런데 염불과 선을 '하나'로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는 수행체계가 있다. 염불선(念佛禪), 혹은 염불화두선(念佛話頭禪)이 바로 그것이다. 이 수행법은 한국불교 근현대의 고승으로 알려진 청화(靑華, 1924~2003) 선사가 주창하면서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과 아미타불을 염하는 수행체계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묘하게 소통(疏通)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염불선의 핵심은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 하고 스스로 돌이켜보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염불 자체가 화두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염불하는 자신을 간절하게 참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성미타가 눈앞에 나타나 견성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염불선은 〈육조단경〉 덕이본으로 유명한 몽산 덕이(蒙山 德異, 1231~1308)의 영향이 크다. 그는 여말선초 우리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에 의하면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반조(返照)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미타불을 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염불이 곧 화두가 되는 것이다. 고려말 태고 보우 역시 당시 유행하던 '무(無)'자 화두 대신 아미타불을 참구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렇게 수행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곧 아미타불임을 깨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서산대사는 염불과 선이 하나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심법요초(心法要抄)〉에서 "참선이 곧 염불(參禪卽念佛)이며, 염불이 곧 참선(念佛卽參禪)"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염선회통(念禪會通)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불교의 특징을 회통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서로 다른 사상들이 만나서(會)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通)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선(禪)과 교(敎)가 그랬던 것처럼, 염불과 선도 그렇게 만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수준 높은 만남은 상대의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 남과 북, 동과 서 등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비록天秘錄

천지인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땅,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도서 가격 15,000원 | 도서출판 대도대한 063)643-7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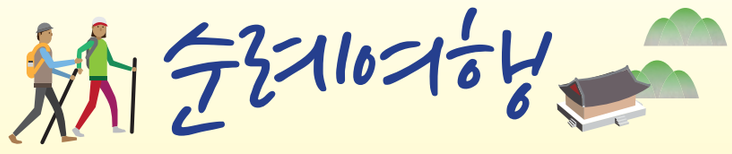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교보문고 각 지점 | 영풍문고 각 지점 | 반디앤루니스 각 지점 | 리브로 각 지점

구리 동원서적 | 대전 보문불교 | 대전 계룡문고 | 대전 중앙출판 | 대구 세원출판
대구 에스디커뮤니 | 울산 처용서림 | 부산 영광도서 | 구미 춘양당 | 창원 창원서적
마산 대신서점 | 전주 홍지서림 | 순천 중앙서점 | 목포 국제서림 | 제주 탐라도서
등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2020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경남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



고성의 대표사찰인 옥천사, 운흥사, 문수암, 장의사, 계승사를 돌아보며 전통산사에 깃든 역사와 문화에 빠져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

경남고성 5대 전통산사 순례여행 일정

참가비 : 무료 문의 : 옥천사성보박물관 전화 055-673-4951

1차	09.12(토) - 13(일)	옥천사 → 계승사
2차	10.10(토) - 11(일)	옥천사 → 문수암 → 운흥사
3차	11.21(토) - 22(일)	옥천사 → 장의사

명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장소 : 옥천사 경내 시간 : 오후 6시 30분 ~ 오후 9시

09.12(토)	고성 근대불교와 5대 전통산사	이성수(불교신문 기자)
10.10(토)	고성 불교의 역사와 5대 전통산사	이종수(순천대 사학과 교수)
11.21(토)	고성 불교의 사상과 5대 전통산사	도법스님(남원 실상사 회주)

www.okcheonsa.com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고성군

현상 조작 말고 있는 그대로 수행을

명상書 톺아보기

정준영 교수의

'위빠사나 이야기-있는 그대로'

〈6〉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법 총정리



지금까지 마하시의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정리하자면 몇 가지뿐이다. 앉아서 하는 수행은 배의 오르내림을 주시하며 '1차 대상' 으로 한다. 서서 하는 수행은 주시하여 몸을 훑는 것으로 진행하며, 걸으며 하는 수행은 발의 움직임과 느낌을 주시의 1차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누워서 하는 수행 역시 누운 상태에서 배의 오르내림을 1차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도 수행자는 동작을 통해 자신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주시한다.

수행자가 위의 방법을 통해 1차 대상을 주시하는 중 1차 대상보다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다면 그 것을 '2차 대상' 으로 삼고, 1차 대상에 놓였던 주시를 2차 대상으로 옮긴다. 그리고 그 현상이 사라지면 다시 1차 대상으로 돌아와 주시를 지속한다. 그리고 만약 2차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오직 1차 대상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주시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간단하다.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기울 듯이, 몸과 마음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강한 현상으로 주시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밥을 먹고 있는데 사납게 생긴 개가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면, 밥이라는 1차 대상 대신에 사납게 생긴 개라는 2차 대상을 먼저 관찰하여 그 것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밥을 먹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현저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굳이 찾아볼 것도 없이 1차 대상으로 돌아오면 된다.

또한 이 수행은 내적통찰, 인사이트(insight)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주시의 대상이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된다. 외부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OO소리' , 'OO소리' 라고 외적 대상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현재의 순간을 '들림, 들림' 이라고 주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행 중에 음악소리가 들리면 그 음악의 멜로디를 따라가며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다. 음악의 선율이나 악기, 가사를 따라가는 것은 외적통찰(outsight)이다. 수행자는 음악자체가 아닌 자신이 '듣고 있음' 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 외부 대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적 주시가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형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임' 으로 알아차린다. 어떤 냄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맡음' 을 알아차린다.

수행 발전과정에서 주의할 것들

위빠사나 수행의 발전 과정에서 수행자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이미 앞 장을 통해 장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본격적인 수행의 발전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을 골라 7가지로 살펴본다.

예상하거나 기다려서는 안 된다

몸과 마음의 현상을 주시함에 있어서 나타날 현상을 미리 예상하거나 기다리면 안 된다. 수행자가 배의 움직임을 통하여 '일어남' 이나 '사라짐' 을 주시할 때, 무엇이든지 '일어남' 이 먼저 나타나면 '일어남' 을 '사라짐' 이 먼저 나타나면 '사라짐' 을 주시해야 한다. 만약 사라짐의 주시 이후에 일어남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기다림' 이라고 주시해야 한다.

실제의 현상 이전에 나타나는 주시는 대상에 밀착된 주시가 아니라 주시한다는 생각에 불과하다. 항상 지금 이 순간의 것을 주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당신이 망상을 주시하고, 망상의 소멸을 주시한 후에 배의 움직임으로 돌아오면, 배의 일어남부터 주시가 됩니까 아니면 배의 사라짐부터 주시가 됩니까?"

대부분의 수행자는 이러한 질문에 "일어남부터 주시가 됩니다"라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수행자는 배를 주시하기 위해 일어남을 기다리고 있거나, 일어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망상에 대한 관찰이 끝났으니 이제 배의 움직임을 보자. 자 시작해볼까. 일어남~'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며 나타날 현상을 미리 예상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초보 수행자가 힘을 주어 배의 움직임을 조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잠시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방법이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찾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1분도 걸리지 않아 자연스러운 호흡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도 힘이 들어간 것 같다면, 잠시 명칭도 주시도 내려놓고 손을 배에 대고 있는 것도 방법이다. 호흡을 잊고 손에 닿는 감각을 느끼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다.

> "몸 · 마음 주시하되 예상하여 반응 금물
>
> 주시대상 조작 행위 수행의 장애요수 되
>
> 희열은 수행 원동력 생멸 관찰이 중요해"

수행 중에 힘을 빼는 것이 힘을 주는 것 보다 어렵다.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연습이 필요하다. 무엇을 예상하거나 기다린다는 것은 조작을 의미한다. 수행자는 현상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상 인위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두 번째 역시 조작과 관련 있다. 주시를 위해 잘 드러날 만한 자극적인 대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수행자는 주시할 대상을 잡기 위해 어떤 현상이나 행동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내서도 안된다. 구부림을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구부리는 동작을 하거나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도 안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현상을 만들어 주시한다면 알아차리기 위해 뭔가 의도하고 기대하는 습관이 생기기 쉽다. 이것은 수행자에게 탐욕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또한 조작된 대상을 쉽게 바라보는 맛에 길들여져 정작 실상을 보기 어렵게 된다. 결국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 수행은 점점 어려워 질 수 있다.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에서의 조작적 행위는 초보 수행자를 위해 행선 등에서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정도로 적합하다. 일부러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요가 자세를 취하며 알아차림을 유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스트레칭과 요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실지견의 위빠사나와는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수행자에게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 혹은 장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싫어하는 마음은 성냄을 일으키고 좋아하는 마음은 탐욕을 일으킨다. 수행자가 현재의 경험이 싫어서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행한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탐욕과 성냄이 성장한다. 결국 수행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그 수행법에 어떤 마음이 함께하느냐의 문제이다. 수행자는 불편함을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불편함을 수용해야 한다.

수행자에게는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보다 자극, 통증, 가려움, 뜨거움, 차가움 등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불안과 초조함이 몰려올 수 있다. 이들은 괴롭고 불편하기에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수행자는 이러한 현상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주시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 현상은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순간의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가시달린 아름다운 꽃에 주의하라

희열은 가시달린 아름다운 꽃과 같다. 흔들림, 오싹한 전율, 부드러운 진동, 장시간 전율하는 쾌감, 잔물결과 같은 소름 등의 느낌은 몸과 마음의 견상으로 희열에 의해 일어난다. 수행자는 이러한 희열을 즐기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시해야 한다. '흔들림' '떨림' '전율' '진동' '소름' 등으로 주시한다. 이름붙이기가 애매할 때는 '앎' 등의 이름으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주시해야 한다.

특히 희열은 수행자가 즐기거나 빠져들기 쉽기에 가능한 객관적으로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희열이 사라진 후에는 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희열은 수행자에 따라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며칠, 몇 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희열은 수행을 더욱 정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임과 동시에 강한 집착을 만든다. 희열을 통해 수행의 지루함을 벗어난 수행자는 마치 중독이 되듯이 희열에 매달린다. 희열이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길 바라는 탐욕을 일으킨다. 따라서 짧게 경험한 희열은 잊어버리고 현재의 대상에 충실하면 된다. 길게 경험되는 희열은 억제하지 말고 소멸할 때까지 주시하여 그 소멸을 분명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자는 희열의 실제 모습과 소멸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간혹 단체수행 중에 희열이 일어나면 주변을 의식하기에 스스로 억제하거나, 지도자에 의해 제지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희열은 희열 자체가 여실히 보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희열이 제멋대로 춤추게 놔두어야 한다. 때로는 희열이 지겨우질때까지 함께해야 희열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그 속성을 알면 다시는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행자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수행자에게 맞는 시기가 되어 나타난 것이니 수용하고 바라보면 된다. 묵묵히 주시하기를 반복하면 머지않아 객관적으로 응시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아름다운 꽃처럼 수행자를 기쁘게 하지만, 이들을 쥐려고 하는 순간 독한 가시에 찔리게 될 것이다. 〈끝〉

세계 붓다 평화 봉사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불기 2564년은 중국 우환에서부터 전파된 코비드19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액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 칭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 존중하고 화합, 단결하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보다는 매사 긍정적이고, 불신보다는 화합의 포용과 미소로 함께 나누는 사회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이름도 富도 名譽도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수행자로 먹물 옷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중생들에 지팡이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불제자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몸소 실천하는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행원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위 모르게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세상 모든 분들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제출서류 및 안내 ◈◈

제출서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1통, 이력서 1통, 사진 1매 내외 ※ 본 협회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 격 승가 및 재가자로 불심이 돈독한 분
접 수 일 2020년 9월 30일(수) 까지
제 출 처 (우)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TEL 02-733-5665 / H·P 010-5229-6061 moktakno1@hanmail.net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상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공동본부장 혜정 · 진성, 조직 본부장, 심사 공동위원장 심오 · 현담,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도광, 심오, 현담,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김재은, 고동욱회장, 명지민,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추천된 대상 시상자들에게 서류 접수비 및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 협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 찬 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08호 | 15 | 전면광고

항상 염불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사견
(그릇된 생각)이 파고들 틈새가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무량문교발지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뚝소리나게 풀어냅니다.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누구나 풀수 있구요.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 인생, 인체의 병, 영가, 일년신수, 왜! 원인과 해결)
▶과거/현재·미래·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PN 손도사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먹으로쓴 반야심경8폭병풍

소장하실 불자님
연락주십시요
지리산 백연사 운송도암
010-9208- 3835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살풀이,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록명법 특강"

전원귀자(부동산횡재), 비재성, 청룡(횡재), 지배살, 파택살(돈빌려주면 못받음), 삼태성, 팔좌성(승진,합격운), 일해, 해신자(승소운), 급각살, 귀한자, 천혁살(죽음,중병운), 록귀척답(부귀명), 천합, 천왕(창업성공), 일좌천록(아내덕), 연귀일좌, 국인신(인덕, 인기)
010-7189-7674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서울중구
010-8721-2198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5049-1533

이 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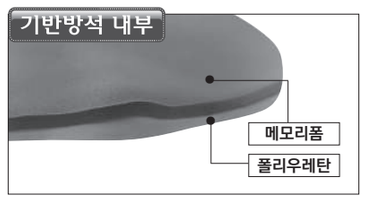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08호 | 16 | 전면광고

옛날에 한 사미가 개미를 구해 줌으로써 착한 일을 닦은 까닭에, 그 수명이 다하도록 괴로움이 없이 몸이 편안했으니, 복덕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생사득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 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세종시 전의면 (청정도량)
- 대지 : 550평, 삼성각4평 목재
- 건평 : 대웅전 24평 목재
- 요사채 : 약 30평, 황토방 10평
- 가액 : 6억 5천
- 주차장시설 완비

010-6768-71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 ◈ ◈
서울·부산 사찰양도 전문 명진도사
◈ ◈ ◈

010-4492-3479

사 찰(급) 안 내

- 위치 : 전주 중심 풍수대명당, 전주 한옥마을 10분거리, 사찰에서 전주가 한눈에 들어옴
- 등기면적 : 4백여평, 실제 사용평수 1천여평 국유지 절 뒤 1만여평 무상 사용중
- 석불(산신, 용왕, 아미타불, 지장보살, 약사여래 불)1억5천 석불로 3년전 모심, 극락전 1억 3년전 신축, 약수터 최상, 대나무숲, 법당, 요사채 1억5천 3년전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40평), 현재 도량 마당 1억 공사중
- 가액 : 5억(대출 3억5천 포함)

010-9647-0723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송구 동산동 동산병원옆, 동산네거리 대도로접 3층
- 40평, 방2, 응접실, 다용도실, 3층건물 3층
- 보증금3백만, 월30만, 시설비 1천5백만
- 즉시 법회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1-9572-465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시 면천면 i.c 3분거리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스라브 양옥 주차장 완비 텃밭100평
- 보증금500 월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살림기기 일체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404-92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6355-646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 이서면
- 200평, 토굴임대
- 법당15평, 청동부처님3존불, 법당종, 104위신중, 후불탱화, 앰프, 에어컨, 소각장, 주차장, 별장같은 요사채, 욕실, 화장실
- 보증금1천만원, 월세30만원
- 시설비3600만원(절충가능)

010-9150-0029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대구 30분거리)
- 대지 : 199평
- 건평 : 22평
- 가액 : 3억 5천
- 잔디밭, 5층석탑, 석등 기타 (경치, 전망 아주좋음)

010-4822-7233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산 4-1 토굴 양도(임대)합니다.
- 방문후 임대, 가격조정가함.
- 법당,산신각,요사채,창고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년20만원

010-5714-787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포교원(할분)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사거리 시장옆
- 2층건물 2층 20평 남향코너
- 보증금200, 월40 부가세, 권리금 없음
- 건물주가 불교신자 협조함

010-5381-14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모든걸 마음 안으로 두고 항상 날날이 그 마음으로 돌리세요

어떤 맘으로 주인공을 찾아야 하나요

질문 : 누구나 자기의 삶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저 또한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매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대행 스님의 모습과 법문을 대하면서 지친 마음을 애써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게 답답하기만 하고 어느 날 주인공에 맡기라는 말 또한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인공을 찾아야 하는지요.

답변 : 첫째는 무조건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거다.' 하고서 관하는 거고, 둘째는 가정살이 돌아가는 것 전부 '그놈이 하는 거니까.' 하고 관하는 거죠. 그놈이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잘되고 못되고 그걸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우주간 법계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일체제불이 한 골수에 들어서 한자리를 할 수 있다면…. 내일 죽는다, 이따 죽는다, 우리 식구가 다 멸망한다 이러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결사적인, 나를 버린 그 마음이 정통으로만 들어간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늠름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칼을 뺄 때는 그냥…. 이거 보세요. 악으로 사는 사람이 칼을 썩 뺐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칼을 썩 뺐을 때는 수많은 중생들을 다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한 칼로다가 부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내일 죽으면 어떻고, 이따 죽으면 어떻고, 식구가 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아휴 참! 이 세상, 이 길, 그냥 걸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 뿐이에요. 왜 사나?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가는지 알아야 답답하지 않다 이 소립니다. 야! 이거 뭐, 캠핑 와서 잠시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우주간 법계에 다 통신이 되는구나. 이럴진대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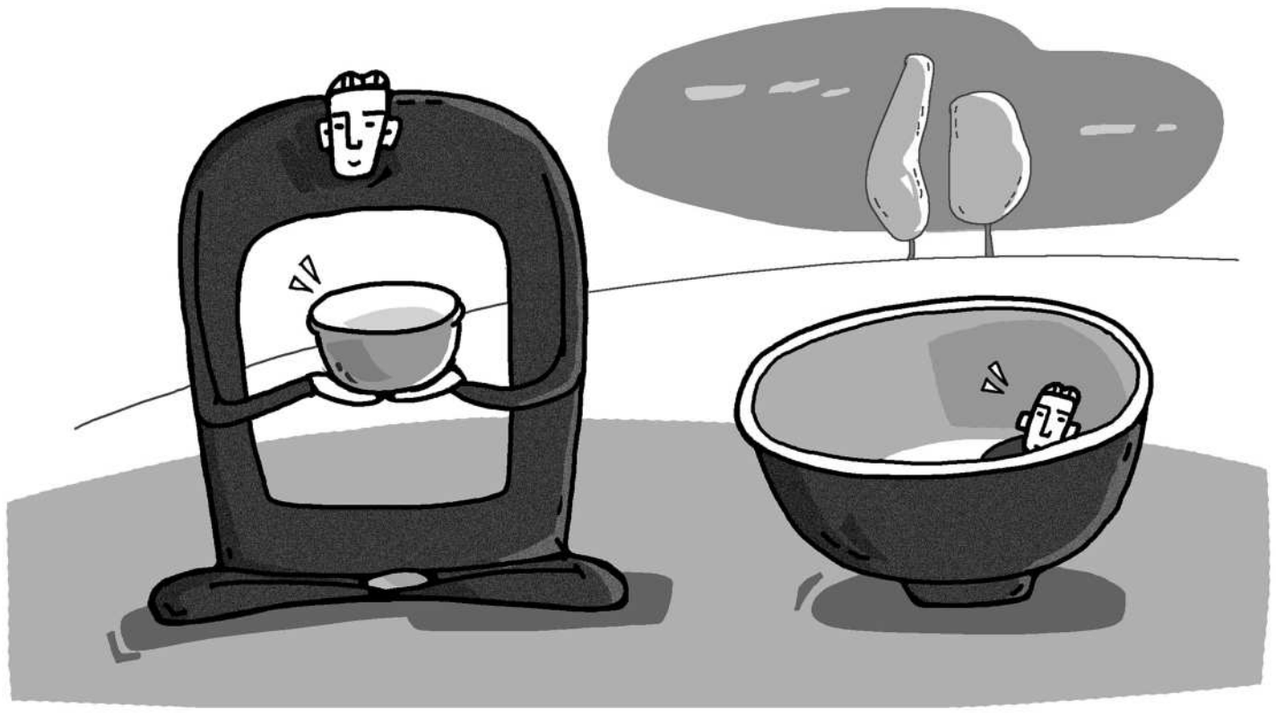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소 한 마리를 잡는다 해도 걱정이 없고, 소 한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진대도 걱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놈의 거 하나하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건지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이판사판이에요. 두 가지뿐에요. 죽느냐 사느냐 요거뿐이지,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어떤 스님이 날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이 토굴의 문에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못은 왜?" 그러니까 "들어간 뒤에 바깥에서 못을 박아서 못 나오면, 죽지 않으면 얻을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얻고 얻지 못하면 죽고, 이거 둘뿐 아닙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요, 정말 아주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 너그럽게 두루 할 수 있고, 항상 싱그레 웃고, 남이 갓 미쳤다고 할 정도로 싱그레 웃고 길을 지나갈 수 있고, 소 둥구리를 봐도 싱그레 웃을 수 있어요. '저거 가엾다.', '저거 죽으러 가지, 뭐.'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왜? 아주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 만 마리를, 아니, 어떤 거든지 만 마리가 모두 죽었다 그럴 때, 그것을 빗물 방울로 친다면 한 골짜기에 다 모였다 해도 한 골짜기에서 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일 뿐이지, 한 그릇이지 그게 두 그릇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체가 없고 무량해요. 그래서 무량심이에요. 일심이자 무량심이고, 무량심이자 그 묘법이죠. 무심도법(無心道法)은 그렇게 무량해서, 지금 수만 마리가 죽으러 간다 하는데 불쌍해서 염불을 해 주고 그런다면 그건 벌써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십, 수백 마리가 죽으러 가는데 무슨 염불이 필요합니까? 염불하다 보면 벌써 다 늦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모조리 이 한 그릇 자기 마음에다 탁, 거기다가 만 마리고 천 마리고 넣으면 그냥 자기 한 그릇이 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그대로 그냥 인간으로 환토가 되는 거죠.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거쳐서 나가는 인간은 나와서도 정말 사람 노릇을 하고 이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지략과 아량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세요. 그냥 딱 세우곤 입 딱 다물고 그냥 걸어가다가 딱 닥칠 때 '네가 하는 거지.' 하란 말입니다. '너!' 하고선 말 안 해도, '너!' 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깜짝할 사이에요. 그러니 재생이 돼서 체가 나올 때는 거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겠지만 이거는 자동적으로 불이 확 붙어서 끓는 쇠가 돼 가지고 직접 바로 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 가난 때문에, 병고 때문에, 잘 살아야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안 돼!', '이거는 어떠한 억겁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하란 말입니다. '안 돼!'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지. 나도 이렇게 왁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러곤 그냥 손을 번쩍 쳐들어서 그냥 쳤단 말입니다. 야, 이게 진짜 깊은 물이 되기 때문에 큰 배가 뜰 수 있고, 큰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생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관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질문 :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하면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많아서 약간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법이라 하지만 아직은 좀 되는 쪽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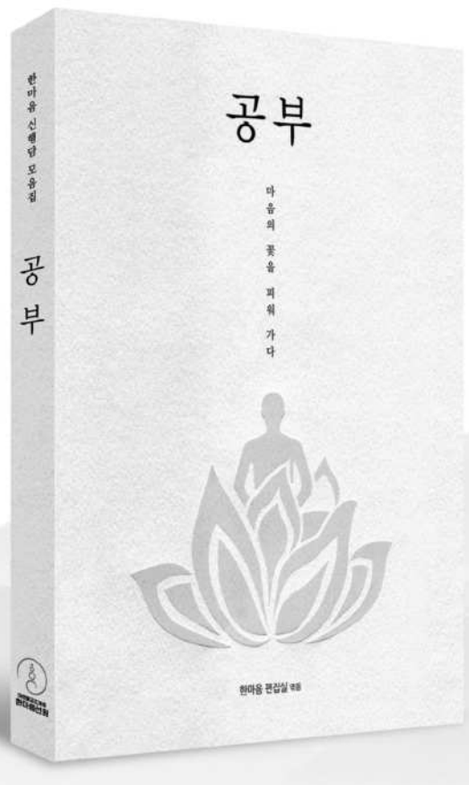
답변 : 안 되는 것도 놓아야 됩니다. 일부러 지금 공부 가르치느라고 자꾸 시험을 하는데 왜 자꾸 속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없는데. 아, 내가 공했는데 안 되는 게 거기 붙을 게 어디 있으며 되는 게 붙는 게 어딨느냐 이겁니다. 그대로 내가 그냥 당당하게 하는 거죠. 여북하면 일시무시일이고 일종무종일이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80종호라 그랬나요. 사무 사유를 한손에 쥐고 말입니다. 그대로 내가 종 칠 때 소리 나는 거지 뭐, 어딨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게 나오더라도 그냥 좋다 하지도 말고 '아, 거기서 하는 거지.' 무조건 한 일 년 반 내리 그냥 놔 버려야 돼요. '거기서만….' 날더러 그전에 이랬어요. 이 스승이 날더러 '죽어야 너를 본다.' 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차바퀴로 들어갔어요. 새벽에 떠나는 걸 알고요. 무척 큰 차니까 뭐, 한 번만 넘어갔다 하면 창자가 꿰지든지 뭐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까맣게 입고 바퀴 밑에 들어가서 숨어선 이리로 넘어가게끔 딱 드러누웠는데 그 차가 안 가요. 반드시 떠날 텐데도.

그러니까 '죽어야 너를 본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더니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형성시킨 그 주인이 바로 제가 지금 들이고 내고 있는데 왜 자기가 거기 덧붙이기로 안 되느니 되느니, 덧붙이기로 그러느냐고요. 남일하는 데, 안 되든지 되든지 왜 상관을 하느

☞ 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고가 고가 아니고 참인간으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다

☞ 17면에서 계속

냐 이 소리에요. 그러니 '내가 살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아주 거기에 그냥 아비를 찾아서, 자식은 아비를 찾아서 그냥 거기 혼합이 돼야지 어떻게 그렇게 자식 따로 아비 따로 이렇게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기다 맡기는 일이 되고, 한 가지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아, 거기서밖에 해결을 못 하지. 거기서 하는 일인데, 뭐.' 속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냥 놓는 게 되지요. 또 '아,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시련이 오고 이런 게 오는구나. 아이, 감사해. 주인공, 감사해.' 아버지라도 그래도 좋고 뭐, 엄마라 해도 좋고. 기르는 건 엄마고 낳는 건 아버지거든. 그러니 기르는 거나 낳는 거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둘이 아니다. 정자 난자가 둘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천지가 둘이 아니듯이. 그걸 한데 합쳐서 자기는 거기에다가 주인공이라 그러는 건데, 주인공만이 내 아비다 이겁니다. 자기 아비에요, 그냥. 천지를 한데 합쳐서 자기 아비에요, 그냥. 공했으니까. 전체가 공했잖아요, 자기까지도. 이름해서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그것도.

그러니 '거기에서, 주인공 아닌 참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가는데 참 감사합니다.' 또는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하지.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빨리 돌려서 되게 해 주는 것도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밖엔 없어요. 모두 일체 다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아, 물을 만방으로 갖다 바다에 뒤 봐요, 두드러지나. 한 바다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저 못난 척하고 그저 모자라는 척하고 그냥 무조건이에요.

입이 거칠어 가족들 마음을 상하게 해요

질문 : 저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입이 좀 거칠어서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안 그러려고 다짐을 하는데도 또 거친 말이 툭툭 튀어나오니 이 습을 녹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변 :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능력은 아주 광대무변합니다. 여러분 앞에 무수한 능력이, 바로 동심으로서의 동력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는 동력이 움죽거리고 있고,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가듯이 그렇게 동력에서 나가는 그 전기의 발전소에 가설된 우주의 법계는 무수한 우리의 마음과 마음들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전달이 됨으로써 좋게 불을 켜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나쁘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항상 편리하고 좋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 번 잘못 쓰면 구덩이에 빠지고 마음 한 번 잘 쓰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남편은 여자한테 그렇고 그냥 무심코 "이, 똥 같은 거." 또는 뭐, 예전에 남들이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에이, 염병을 하고 땀을 낼 년." 뭐, "에이, 나가서 뒈져라." 요새도 그럴는지 모릅니다. "나가서 저런 건 그냥 어휴, 뒈졌으면…. 차라리 안 봤으면…." 하고 이러한 욕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가장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는 한가족이, 바로 짚단이, 바람이 불면 짚단이 날아갈까 봐 같이 의지하고 같이 동여매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같이, 쓰러져도 같이 쓰러지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맺어 놓은 인연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그냥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깥으로 나가게끔 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를 막론해 놓고 바깥으로 그 목소리가 나가게끔 된다면 벌써 악의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악쓰는 법, 욕하는 법 그 모두를, 상 찌푸리고서 마음을 괴롭히는 법, 이런 것을 다 아마도 주인공에다 놓고 녹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럭하면 안 되는가 하면, 내 한생각의 마음과 더불어 말 자체가 바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무심코 생각하고 한번 욕한 것이 그대로 이행이 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피가 나게 하고 아픔을 자기가 당하는 법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무심코 말하고 그냥 그것이 그 후에 다가오는데 그게 거기서 오는 줄은 모릅니다. 이 마음 한 번 잘못 쓰고 말 한 번 잘못 쓰는 거,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 법이 준엄한지, 옛날에 어느 인군이 말입니다, 그 나라의 신하들을 데리고 순찰을 도시다가 어느 절간엘 들어섰습니다. 그랬는데 그 절간에 들어서자마자 신하들은 그 중이라는 것이 인군에다 대면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우주의 섭류를 공부하신 그분의 그 진심한 도심은 누구도 감히 거기에 응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당에 앉아 계신 그 스님더러 하는 소리가, 인군이 납시는데 어떻게 신하가 와서 배례를 안 하느냐고 하면서 "냉큼, 이 중 놈!" 하고 욕을 했습니다. "중 놈이 제 것이 나가서 배례를 안 하다니!" 하고 당장 목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조건이 하나 있다." 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고 신하는 아주 도도하게 아만을 부렸습니다. 그랬으나 이 스님께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한 발짝을 떼어 놓는 대로 일 년이 흉년이 드는데도 내가 일어서야만 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깐 어쭙잖은 소리 하지도 말라 하는 식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당장 그런 나발 같은 소리, 지금으로 치면 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가서 얼른 배례 해라 했습니다. 그럴 때 잠자코 그 스님은 "그러면 나 아닌 내가 할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발짝 두 발짝 떼어 놨습니다. 그랬는데 일곱 발자국을 떼니까 벌써 그 인군은 거기 앞에 닥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내 신하가 있다 하는 소리가 "배례를 하라! 인군이 오셨는데 중 놈의 새끼가 무슨 잔소리가 있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몸을 한 번 꾸부린다면 7년에 일곱 발자국, 7년을 가뭄이 들어서 이거는 속수무책으로 이 법에 거역은 못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천둥 같은 호령을 하기를, 신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그럼 그렇게 하지." 하고선 또 절을 했습니다. 한 번 구부렸습니다.

그러고선 돌아서서 그 해부터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 년이 흉년이 돼, 이태가 흉년이 돼, 삼 년이 흉년이 되니까 있던 거는 다 먹고 인제는 땅이 쩍쩍 갈라져서 도저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군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신하들을 다 불러서 "이 짐이 공덕이 없어서, 덕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 제를 지내야 비가 오려나." 하고서 만수성찬을 차려 놓고선 기우제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신하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때 삼 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디 그럴 수가 없어서 제를 지내도 비는 안 오고 칠 년이 닥쳐도 안 오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죽게 되고, 죽는 사람이 절반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깐, 인군은 인군대로 다시 모이라고 해서 또 기우제를 지냈는데도 비는 안 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됐었노라고 하니까 임군이 호령을 했습니다. 왜 진작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날까지 두고 이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만들고 이렇게 불충을 저질렀느냐고 호령을 했습니다. 호령을 하면서 자기가 손수 임군의 의복을 다 벗고 사복을 하고 그냥 그 절에 가서 삼배를 깍듯이 하면서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잘못했노라고 사죄를 하니 그 스님은 거기에서 고만 그 법을 풀었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도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은 사람이 5년 징역을 받았든지 10년 징역을 받았든지, 그것은 그 서류를 감히 찢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마음의, 그 우주간 법계의 법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생각에 마음이 누그러지니 그 우주의 그 모든 일체 신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바로 그 법을 풀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풍년이 들고, 또 어차피 죽은 거는 죽고 사는 거는 살듯이 그렇게 됐던 그 백성들은 또다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을 잘 이끌어 가지고 갔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그 임군은 지혜가 있었던지 그렇게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이 얼마나….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위 부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얕게 보지 말고, 나와 같이만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만 생각하고, 내 몸같이만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항상 검소하게 사는 그 아리따운 마음, 청정한 마음으로서 그 불심을 진심으로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다 평전하게 우주에, 참근본으로서의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앞에 주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 생각,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이 잘 깊이깊이 한번 다시 옷깃을 여미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빕니다.

부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달리 있는 거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전 우주의 법계를 다 쥐어도 쥔 사이 없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한마음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 자리에 바로 이렇게, 어떤 것도 세울 게 없이 세우시면서 당당히 흐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생각 한 번 잘못하고 말 한 번 그냥 잘못하면 그렇게 자손들이라도 잘되지 못하게 되죠. 바로 뿌리가 한쪽이 썩는다면 싹도 한쪽이 썩듯이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의지하고자 했는데

질문 : 저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내 친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살고 싶었고, 마음공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잘 안됩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못마땅해하시고 나무라시면 남편도 덩달아 부모님 편을 드니 저는 남편이 더욱 미워집니다. 얼른 한마음으로 평온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관하고 돌려 보지만 마음의 힘이 약한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마음 안으로 두고 항상 낱낱이 그 마음으로 돌리세요. 자기 마음 안으로 돌려요. 그러면 그것이 다 해결 날 때가 옵니다. 고집멸도 사제법이 결국은 이런 거예요. 고가 고가 아니고 인간이 참인간으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댁이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억압적인 말을 하고 당치도 않은 말로 모함을 해서 참, 남편한테 매도 맞고 별의별일 다 있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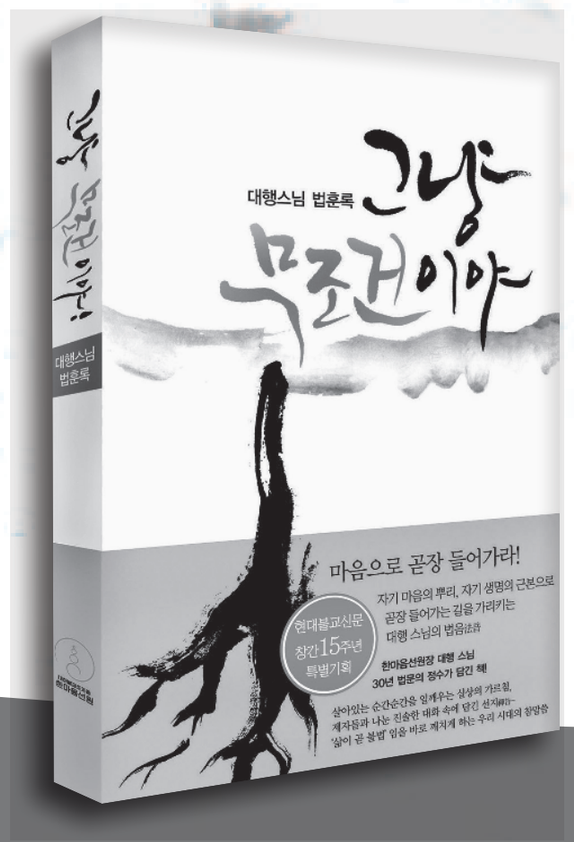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니다. 부모의 탓도 아니요, 남편의 탓도 아니니, 내 주인이 바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나에게 부딪치게 해서 나를 다지고 다져서 둥글게 만들기 위한, 모진 거를 없애게 하는 그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도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초식을 심어서 자랄 때까지는 그냥 길러야지 별수 없거든요. 아무리 따 먹을 때가 급박하고 아무리 그것을 빨리 추수를 해서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을지라도 '이거 언제 자라서 먹을 수 있을까. 또 언제 길러서 내 낭군 삼을까.' 하하하. 노랑두 상투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속담의 말이 있죠. 그렇게 해도 어느 땐가 가야 그것이 익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 당신이 익음으로써 그쪽도 익어요. 당신이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급한 마음도 꼭지가 덜 떨어져서 급하거든. 꼭지가 덜 떨어졌음으로써 그쪽도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하루바삐 꼭지가 떨어져서 익음으로써 그쪽도 그게 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 탓이에요.

> **부처님의 마음은 전 우주 법계를 다 쥐어도 쥔 사이 없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어떤 것도 세울 게 없이 세우면서 당당히 흐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나와 친구가 되다

나는 내 자신과 친구가 되었다. 어떤 복으로 이런 우애가 생겼는지 놀랍고 감사하다. 나 자신과 화목하게, 이 몸과 조화롭게 잘 지내고 있다. 내 자신도, 내 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잘 난 것도 못 난 것도 다 괜찮다. 어떤 복으로 이렇게 됐는지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허물은 많지만 허물에 대한 불만은 없다. 허물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숨기고 싶은 마음은 없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 자신이다. 어떤 복으로 이렇게 됐는지 놀랍고 감사하다.

소울메이트를 찾았으니 더 이상 밖에서 찾지 않는다. 요즘 말로 '베프'가 있으니 어디 가서도 좋은 벗과 함께 한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자신에게 친절하고 선한 벗이 되었다. 어떤 복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놀랍고 감사하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만족을 누린다. 모든 중생을 가슴에 품는 보리심의 원으로 결코 혼자가 아닌 혼자서 달콤한 외로움, 한적한 내 마음, 나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⑰ 태국 · 부탄– 방콕서 팀푸까지

'팀푸'의 밤은 찬란하고 아름답다

은둔과 신비의 나라 부탄은 내 오랜 염원이자 이룰 수 없는 꿈과 같은 곳이었다. 순백의 히말라야 설산 아래 잊혀진 '샴발라' 이상향과도 같은 부탄. 세계 행복지수 부동의 1위를 지켜오는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지난 2017년 봄에 '설정 스님과 함께하는 태국, 부탄 성지순례'를 가졌다.

1350년경에 건립된 아유타야 왕국은 수코타이에 이어 시암왕국의 두 번째 수도가 된 곳이다. 아유타야는 18세기에 버마인에 의해 파괴되고 약탈되면서 폐허로 변했다. 그럼에도 1991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깊은 도시이다.

우리 일행은 어느 웅장한 사원에서 이번 순례의 고불식을 봉행하고 아유타야의 유적들을 참배하였다. 부처님 열반상과 수려한 외모의 당당한 불상은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목이 잘려나간 불상들과 나무에 처박힌 채 미소짓는 부처님 두상의 모습들은 안타깝고 처연한 마음이 든다. 그것도 같이 불법을 신봉하는 버마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 더욱 마음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

태국의 수도인 방콕으로 돌아와 와불이 유명한 왓포 사원을 참배하고, 차오프라야 강을 유람선으로 건너 새벽사원으로 불리는 왓아룬 사원을 방문했다. 석양빛에 물든 왓아룬사원의 탑들이 장엄하기 그지없다. 차오프라야 강변에서 저녁을 먹고 야경의 아름다움에 취해 황홀한 행복감을 만끽하였다.

다음날 부탄항공으로 방콕에서 부탄의 수도 팀푸 외곽의 파로 국제공항으로 향한다. 부탄항공의 로고인 하늘을 나는 물고기 문양이 이채로우면서 아름답다. 비행기 창문으로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설산의 장관이 펼쳐지니 설레임과 기대감이 차올랐다. 드디어 도무지 존재하지 않을 듯한 공항 활주로를 향해 수직하강한 비행기는 파로국제공항에 우리 일행을 내려 놓았다.

작고 아담한 공항을 나서니 이미 익숙한 인도인 멋쟁이 가이드와 전통복장의 맘씨 좋게 생긴 현지 가이드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특히 부탄 가이드는 치마같은 전통복장에 사람 좋은 미소와 너스레로 인기를 독차지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산과 강을 따라 봄꽃이 만발한 자연을 벗하여 수도 팀푸로 향했다. 우린 지금 '오래된 미래'와도 같은 부탄에 온 것이다.

부탄의 수도에는 신호등이 없다. 한번 설치했다가 인간미가 없다는 시민의 항의로 인해 철거했다고 한다. 그래서 번화가에는 수신호를 하는 교통경찰을 볼 수가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첫 눈이 오는 날은 자동으로 휴일이 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로맨틱하고 아름다운가! 첫 눈이 내리면 가족끼리 눈구경을 하거나 연인을 만나 사랑을 만끽할 수가 있다니!

왜 부탄이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인지 실감나는 대목이다. 솔직히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은 심정이다.



부탄의 수도 팀푸 외곽에 위치한 산 위에는 56m 크기의 청동 석가모니불좌상인 '도르덴마 청동대불'이 있다.

세계 행복지수 1위의 국가 '부탄'
히말라야 이상향으로 기대 만발
검소한 국왕 · 국민이 행복 근원

시내 호텔에 여장을 풀고는 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과자, 사탕, 초콜릿을 잔뜩 사서 데첸 포드랑 승가학교로 향했다. 어린 동자승들 수백 명이 모여 수학하고 있는 곳으로 팀푸 시내가 내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다. 지도법사 설정 스님도 동진출가를 하신지라, 남다른 그윽한 눈빛과 자애로운 미소로 함께 한다. 마치 포대화상인양 먹거리를 나눠주시며 행복했다.

승가학교를 나와 부탄의 정부청사이자 왕궁사원인 '타시초종'을 찾았다. 가끔 부탄 국왕이 손수 자전거를 타고 왕궁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국민들과 격의없이 인사를 나눈다고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신의 왕과 검소하고 후덕한 왕비가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부탄 사람들은 대자연에 의지해 만족하며 살아가고, 전통을 지키며 사랑과 행복을 더 없이 소중한 가치로 생각한다.

타시초종을 나와 인근의 '장강차 라캉' 사원으로 향했다. 작은 언덕 위에 그림처럼 자리한 아담한 사원인 이곳은 팀푸의 아이들 이름을 짓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팀푸 시민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3일 이내에 '장강카 라캉' 사원에 데리고 와서 치성을 드리고 이름을 받아간다. 또한 아이들이 아프면 사원에 먼저 들러 기도를 한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한다.

법당에는 티베트불교 양식의 11면 관세음보살이 조성되어 있다. 법당 내부에 따로 마련된 금당에는 승려와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마당에는 마치 삼신할미를 닮은 보살상이 모셔져 있는데, 아마도 아이를 갖기를 바라며 치성을 드리는 것이리라. 이곳을 찾는 부모와 아이들의 모습이 정겹다.

법당 밖 공터에는 야크 버터로 조각한 망자를 위한 위패 모양의 장식물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연하게 자리한다. 마치 삶과 죽음이 이곳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다. 내 주변의 먼저 떠나간 이의 명복과 함께, 새로 태어난 모든 생명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두 손을 모아 기원드렸다.

다시 시내로 나와 '도르덴마 청동대불'을 보러 갔다. 팀푸 시내가 한 눈에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56m의 대불이 자비하신 미소로 자리한다. 팀푸의 랜드마크이자 정신적 귀의처인 도르덴마 청동대불을 우러러 경배하며 이번 순례의 원만회향을 기원해마지않는다.

부탄에서의 첫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 저녁공양을 하였다. 지극히 간단하고 소박한 밥상이지만 꿀맛이 따로 없다. 강원도 출신이라 감자에 트라우마가 있어 보통은 안 먹는데, 이곳 감자요리는 본연의 맛과 향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정성을 다하고 항상 밝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부탄 사람들의 모습과 살가운 정에 감동과 환희심이 일어난다. 한 나라의 수도라도 불빛이 많지 않은지라 밤 하늘의 별빛이 휘황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팀푸의 밤은 낮보다 소중하고 찬란하며 아름답다! 〈조계종 교육부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 02)732-1520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